

東醫寶鑑중 脈法에 관한 研究

주신탉 · 김정국 · 박원환¹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진단학교실

Abstract

A Study on the Way of Pulse-diagnosis by Dongeuibogam

Shin-Tak Joo · Jung-Guk Kim · Won-Hwan Park¹

Department of Diagnost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Objectives

A study on the importance and consistency of pulse-diagnosis in the Dongeuibogam

Methods

We used Deyeuk Dongeuibogam of Dongeuibogam publishing company from original photographic edition.

Results

The frequency of 27 mek (pulse condition) in Dongeuibogam is as in the following. Bumek (Floating pulse) appeared 120(8.9%) times, wanmek (moderate pulse) appeared 28(2%) times, chokmek (running pulse) appeared 7 (0.5%) times, gyumek (hollow pulse) appeared 19 (1.4%) times, saekmek (uneven pulse) appeared 33 (2.4%) times, sapmek (uneven pulse) appeared 51 (3.8%) times, kyulmek (knotted pulse) appeared 18 (1.3%) times, whalmek (slippery pulse) appeared 69 (5.1%) times, chimek (slow pulse) appeared 43 (3.2%) times, demek (intermittent pulse) appeared 13 (1%) times, silmek (replete pulse) appeared 45 (3.3%) times, bokmek (deep-sited pulse) appeared 29 (2.1%) times, neomek (firm pulse) appeared 4 (0.3%) times, hyunmek (taut pulse) appeared 110 (8.1%) times, yumek (soft pulse) appeared 20 (1.5%) times, dongmek (short and rapid pulse) appeared 16 (1.2%) times, kinmek (tense pulse) appeared 67 (5%) times, yakmek (weak pulse) appeared 46 (3.4%) times, semek (thready pulse) appeared 62 (4.6%) times, hongmek (full pulse) appeared 50 (3.7%) times, jangmek (long pulse) appeared 14 (1%) times, sakmek (rapid pulse) appeared 103 (7.6%) times, mimek (indistinctive pulse) appeared 65 (4.8%) times, danmek (short pulse) appeared 16 (1.2%) times, demek (large pulse) appeared 106 (7.9%) times, chimmek (deep pulse) appeared 112 (8.3%) times, heomek appeared 70 (5.2%) times, sanmek (scattered pulse) appeared 14(1%)times.

Conclusions

We can know Donguiboam is given on the basis 27mek (pulse condition), because the frequency of 27mek (pulse condition) is high. But there are another expressions. So we can not say that Donguiboam is consistent in expressing mekbu(the way of pulse-diagnosis).

Key Words

Pulse-diagnosis, 27 pulse diagnosis, dongeuibogam, 27 mek(pulse condition), the way of pulse-diagnosis

* 교신저자 : 박원환 / 소속 :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진단학교실

TEL : 054-770-2373 / E-mail : diapwh@dongguk.ac.kr or jindanhak@hanmail.net

투고일 : 2011년3월19일; 수정일 : 2011년4월6일; 게재확정일 : 2011년4월11일

I. 緒論

東醫寶鑑은 許浚이 宣祖의 命을 받아 편찬하기 시작하여 光海君 2년(1610년)에 완성된 서적으로서, 奎章閣에 보관되어 있는 開刊本을 시작으로 亨保本, 手抄本, 刻本, 敦化堂, 英德堂, 寬政本, 重刊本 등의 板本으로 板刻되었고,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중국 일본에서도 여러 出版本 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¹⁾

東醫寶鑑은 우리나라에서 編纂된 醫書는 물론, 中國에서 輸入된 醫書까지 모두 活用해서 編纂한 것으로 病症을 中心으로 한 病門으로 나누지 않고 現代의 分類方法과 유사하게 病症과 治療方法을 中心으로 詳細히 說明을 해 두고 있으며, 診斷分野에서도 細密하게 分類해 두고 있다.

특히 東醫寶鑑은 診斷에 있어서 【診脈】 門을 두어 脈診의 重要性을 浮刻시키고, 【脈法】 이란 條文에서 각 病症에 따른 脈象을 詳細히 다루고 있다.

이에 방대한 醫書들을 집대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東醫寶鑑은 韓醫學의 診斷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脈을 얼마나 중요시했는지 파악하고, 또한 얼마나 일관성있게 접근 했는지와 脈法에서는 어떤 文獻들을 주로 引用하였는지를 알기위해 東醫寶鑑 全篇 각 部門에 있는 【脈法】 이란 條文을 아래의 方法으로 研究하여 얻은 知見을 보고하고자 한다.

II. 研究方法

初刊本 影印本을 底本으로 한 東醫寶鑑出版社의 對譯東醫寶鑑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分析方法은 다음과 같다.

1) 許浚, 新對譯東醫寶鑑, 東醫文獻研究室編譯, 서울:法人文化社, 2007

1. 病症辨別에 대한 脈의 역할
2. 病因辨別에 대한 脈의 역할
3. 東醫寶鑑의 脈象分析 및 脈象頻度
4. 單一脈과 複合脈(兼脈)

III. 本論

1. 脈法 - 內景篇

1) 精部²⁾

【脈法】

① 『脈經』에는 “남자의 脈이 微弱하면서 澁하면 자식이 없다. 그리고 精液은 멀겁고 차다”라고 하였다.

② 『脈訣』에는 “遺精과 白濁證에 尺部脈이 結하거나 抃하거나 動하거나 緊하지 않는가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 이 맥들은 遺精, 白濁 두 병증을 앓게 하는 징표로 된다.”고 하였다. 또한 “瀯脈은 精血이 부족한 증상이다. 남자의 脈이 瀯한 것은 精液이 부족한 것이다”고 하였다.

③ 또한 “脈이 瀯한 것은 精液이 줄어들고 血이 부족해진 것이다”고 하였다.

④ 『醫鑑』에는 “脈이 微하고 瀯한 것은 精이 상한 것이다”고 하였다.

2) 氣部³⁾

2) ○脈經曰男子脈微弱而澁爲無子精氣清冷也。

○脈訣曰遺精白濁當驗於尺結抃動緊二證之的

○又曰瀯脈爲精血不足之候丈夫脈瀯號傷精又曰瀯爲精竭血枯

○醫鑑曰微瀯傷精

3) ○仲景曰脈浮而汗出如流珠者衛氣衰也。

○又曰寸口脈微而澁微者衛氣衰澁者榮氣不足

○脈經曰寸口脈瞥瞥如羹上肌者陽氣微榮榮如蜘蛛絲者陰氣衰也。

【脈法】

① 『仲景』은 “脈이 浮하면서 구슬 같은 땀이 흐르면 衛氣가 쇠약한 것이다”고 하였다.

② 또한 “寸口脈이 微하면서 澁微한 것은 衛氣가 쇠약한 것이다. 澁한 것은 榮氣가 부족한 것이다”고 하였다.

③ 『脈經』에는 “寸口脈이 국위에 기름덩이가 뜬 것 같은 것은 陽氣가 미약한 것이며 거미줄을 만지는 것 같은 脈은 陰氣가 쇠약한 것이다”고 하였다.

④ 또한 “代脈은 氣가 쇠약한 것이며 細脈은 氣가 적은 것이고 脈이 浮하면서 끊어지는 것은 氣가 끊어 지려는 것이다”고 하였다. 또한 “趺陽脈이 浮하면서 澁한데 澁하면 衛氣가 虛한 것이고 衛氣가 虛하면 숨결이 가쁘다”고 하였다.

⑤ 『脈訣』에는 “손으로 눌러서 脈이 沈하면 骨氣病인 줄 알아야 한다. 몹시 沈한 것을 伏脈이라고 한다. 瀉弱脈은 치료하기 어렵다. 그 脈이 沈滑하면 氣病에 痰飲을 겸한 것이다”고 하였다.

⑥ 또한 “脈이 沈弦하고 細動한 것은 모두 氣痛證이다. 心痛이 있으면 寸脈부위에 나타나고 腹痛인 경우에는 關脈부위에 나타난다. 아랫도리에 병이 있을 때에는 尺脈부위에 나타나고 脈象이 현저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⑦ 『仲景』에는 “趺陽脈이 微하고 緊한데 緊한 것은 寒證이고 微한 것은 虛證이며 微脈과 緊脈이 서로 어울리면 숨이 차게 된다”고 하였다.

3) 神部⁴⁾

- 又曰代者氣衰細者氣少浮而絕者氣欲絕
- 又曰趺陽脈浮而澁則衛氣虛虛則短氣
- 脈訣曰下手脈沈便知是氣沈極則伏瀉弱難治其或沈滑氣兼痰飲
- 又曰沈弦細動皆氣痛證心痛在寸腹痛在關下部在尺脈象顯然
- 仲景曰趺陽脈微而緊則爲寒微則爲虛微緊相搏則爲短氣

4)○七情傷脈喜則脈散怒則脈促(一作激)憂則脈澁思則脈沈

【脈法】

① 七精이 지나치면 脈을 상한다. 너무 기빠하면 脈이 散하고 몹시 성내면 脈이 促(어떤 곳에는 激)하며 지나치게 근심하면 脈이 澁한다. 너무 생각하면 脈이 沈(어떤 곳에는 結)하며 너무 슬퍼하면 脈이 結(어떤 곳에는 緊)하다. 몹시 놀라면 脈이 떨리고 (顫 어떤 곳에는 動하고) 몹시 무서워하면 脈이 沈하다.

② 너무 기빠하여 心을 상하면 脈이 虛하고 너무 생각하여 脾를 상하면 脈이 結하다. 너무 근심하여 肺를 상하면 脈이 澁하고 몹시 성내어 肝을 상하면 脈이 濡하다. 몹시 무서워하여 腎을 상하면 脈이 沈하게 되고 몹시 놀라서 膽을 상하면 脈이 動한다. 지나치게 슬퍼하여 心包絡을 상하면 脈이 緊해진다. 대개 七精이 지나치면 氣口脈이 緊盛할 따름이며 자세히 나누어 보면 위와 같다.

③ 癲癇에 脈이 大滑한 것은 오래 있으면 저절로 낫는다. 脈이 小堅하면 빨리 죽으며 치료하지 못한다. 또한 癲癇에 脈이 虛하면 치료할 수 있지만 脈이 實하면 죽는다.

④ 癲癇의 脈이 浮, 洪, 大, 長하고 滑, 大, 堅, 實한 것은 痰이 心에 쌓여서 發狂하는 것이다. 또한 脈이 大, 堅, 疾한 것은 癲狂이다.

(一作結)悲則脈結(一作緊)驚則脈顫(一作動)恐則脈沈<得效>

○喜傷心則脈虛思傷脾則脈結憂傷肺則脈澁怒傷肝則脈濡恐傷腎則脈沈驚傷膽則脈動悲傷心包則脈緊凡七情之脈惟氣口緊盛而已細分之則如此<入門>

○癲疾脈搏大滑久自己脈小堅急死不治又曰癲疾脈虛則可治實則死<內經>

○癲癇之脈浮洪大長滑大堅實痰蓄心狂又曰大堅疾者癲狂<脈訣>

○恍惚癲狂實大爲順沈細爲逆<得效>

○靈樞曰凡脈急甚皆爲癲狂厥疾

○心中驚悸脈必結代飲食之悸沈伏動滑<脈訣>

○寸口脈動而弱動爲驚弱爲悸又曰肝脈動暴有所驚駭<正傳>

○人恐怖其脈何狀師曰脈形如循絲纒纒然其面白脫色也又曰人愧者其脈何類師曰脈浮而面色乍白乍赤也.<脈經>

⑤ 精神이 얼떨떨하고 癡狂이 발작했을 때 脈이 實하고 大하면 順證이며 沈하고 細하면 逆證이다.

⑥ 『靈樞』에는“대체로 脈이 몹시 급한 것은 다 癡狂과 厥病이다”고 하였다.

⑦ 놀라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은 脈이 반드시 結하고 大하다. 飲食으로 인하여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은 沈伏하고 動滑하다.

⑧ 寸口脈이 動하고 弱한데 動한 것은 놀라는 것이고 弱한 것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이다. 또한 肝脈이 動한 것은 갑자기 놀란 일이 있기 때문이다.

⑨ “사람이 무서워할 때 그 脈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선생이 말하기를 “脈의 형태가 여러 가닥으로 끈 실을 훑는 것 같고 그 얼굴빛이 새하얗게 된다.” “또한 부끄러워할 때 脈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선생이 말하기를 “脈이 浮하고 얼굴빛이 잠깐 희어졌다 잠깐 붉어졌다 한다”고 하였다.

4) 血部⁵⁾

【脈法】

① 『脈經』에 脈이 澁하면서 濡弱한 것은 亡血證이 생긴 것이라고 하였다.

② 『脈訣』에 여러 가지 병으로 피를 잃으면 芤脈이 나타나는데 이때에 脈이 沈細하면 치료할 수 있고 浮大하면 치료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③ 『正傳』에 “芤脈은 피를 잃은 脈이고 澁脈은

피가 부족한 脈이다. 그리고 피를 토한 다음에는 반드시 大脈과 芤脈이 나타난다. 大脈은 熱이 있는 脈이고 芤脈은 피를 잃은 脈이다”고 하였다.

④ 『靈樞』에 “코피가 계속 나오면서 脈이 大한 것은 좋지 못한 증상”이라고 하였다.

⑤ 『內經』에 “脈이 빠르고 코피가 나오면서 몸에 熱이 나면 죽는다”고 하였다.

⑥ 『難經』에 “病으로 피를 토하거나 코피가 나올 때에는 脈이 반드시 沈細하여야 하는데 반대로 浮大하면서 牢하면 죽는다”고 하였다.

⑦ 仲景은 피를 몹시 흘린 다음 脈이 實한 것은 치료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⑧ 丹溪는 피를 토하거나 코피가 나오면서 脈이 滑數한 것은 치료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⑨ 피를 토하거나 가래침에 피가 섞여 나올 때에 脈이 小弱하면 살고 脈이 實大하면 죽는다.

⑩ 피를 흘리는 여러 가지 病에 脈이 大하면서 數한 것은 좋지 못한 증상이다.

5) 言語⁶⁾

【脈法】

① 寸口脈이 微하고 澁하다면 微한 것은 衛氣가 부족한 것이고 澁한 것은 榮氣가 넉넉치 못한 것이다. 衛氣가 부족하면 숨결이 받고[短] 형체가 마른다[燥]. 피가 부족하면 형체가 나빠진다. 榮衛가 다 虛하면 말이 헛갈린다.

② 心脈이 뜬하[搏擊] 길면서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혀가 오그라들었기 때문이다.

③ 心脈이 몹시 濇한 것은 병어리가 되려는 것이다. 手少陰의 別脈(通里라고 한다)은 갈라져 위로 올라가서 心에 들어갔고 혀뿌리와 연결되었는데 이

5) ○脈經曰脈得諸澁濡弱爲亡血

○脈訣曰諸證失血皆見芤脈脈貴沈細浮大難治

○正傳曰芤爲失血澁爲少血又曰吐血之脈必大而芤大爲發熱芤爲失血

○靈樞曰衄而不止脈大者逆

○內經曰脈至而搏血衄身熱者死又曰腹脹便血脈大時絕者死

○難經曰病若吐衄血脈當沈細反浮大而牢者死

○仲景曰脫血而脈實者難治

○丹溪曰吐衄血脈滑數者難治

○吐唾血脈小弱者生實大者死

○諸失血證脈大且數者逆

6) ○寸口脈微而澁微則衛氣不足澁則榮氣無餘衛不足其息短其形燥血不足其形逆榮衛俱虛言語謬誤<脈經>

○心脈搏堅而長當病舌卷不能言<內經>

○心脈濇甚爲瘡又曰手少陰之別脈名曰通里別而上行入於心中繫舌本虛則不能言<靈樞>

것이 虛하면 말을 하지 못한다.

6) 津液⁷⁾

【脈法】

① 『內經』에는 “팔뚝 안쪽 피부가 거칠고 脈이 滑한 것은 땀이 많은 것이다”고 하였다. 주석에는 “팔뚝 안쪽 피부가 거칠고 尺脈이 滑한 것은 저절로 땀이 나오면서 피가 마르고 진이 많이 빠졌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② 脈이 大하면서 虛하거나 浮하면서 濡한 것은 땀이 나기 때문이다.

③ 『脈訣』에는 “땀이 나오면서 脈이 浮, 虛, 澁, 濡, 軟, 散, 洪, 大할 때에는 목이 말라서 물을 계속 마신다”고 하였다.

④ 땀이 날 때에는 肝脈이 浮, 虛, 濡, 澁하다. 저절로 땀이 나는 것은 寸脈에서 알리고[在] 식은땀이 나는 것은 尺脈에서 알린다.

⑤ 『脈經』에는 “남자의 脈이 보통 허, 약(弱), 미(微), 세(細)하면 식은땀이 잘 난다”고 하였다.

⑥ 寸口脈이 微하고 尺脈이 緊한 것은 몸이 虛弱하고 땀이 많이 나기 때문이다. 이때에는 陰은 항상 있으나 陽은 끊어져서 알리지 않는다.

⑦ 傷寒 때 脈이 浮하면서 遲하고 얼굴이 달아올라서 벌겍게 되고 몸이 떨릴 때에는 땀을 내야 낫는다. 脈이 遲한 것은 陽이 없어진 것인데 이때에는 땀이 잘 나지 않고 반드시 몸이 가볍다.

7) 痰飲⁸⁾

【脈法】

① 왼쪽과 오른쪽의 脈이 다 弦한 것은 寒飲이고 한쪽만 弦한 것은 飲이다.

② 肺飲 때에는 弦脈이 나타나지 않고 오직 숨이 몹시 차면서 숨결만 짧다.

③ 脈이 沈하면서 弦한 것은 懸飲인데 이때에는 속이 아프다.

④ 脈이 浮하면서 細滑한 것은 飲에 傷한 것이다 [중경].

⑤ 한쪽의 脈이 弦한 것은 飲이다. 그리고 沈하면서 弦滑한 脈이 나타나거나 結脈이 나타나거나 伏脈이 나타나는 것은 痰飲이 뼈마디에 침범했기 때문이다.

⑥ 『脈理提綱』에 “痰의 脈은 弦滑하다”고 하였다.

⑦ 『三因方』에 “飲脈은 다 弦微하면서 沈滑하다”고 하였다.

⑧ 脈이 沈弦하고 細滑하면서 크고 작은 것이 고르지 않은 것은 다 痰飲으로 생긴 病이다.

⑨ 瀉脈이 오랫동안 나타나면 반드시 조리하여야 한다. 그것은 痰이 갖풀(아교)같이 되어 血脈을 막은 것이기 때문이다.

8) 胞部⁹⁾

8) ○脈雙弦者寒飲也. 偏弦者飲也

○肺飲不弦但苦喘短氣

○脈沈而弦者懸飲內痛

○脈浮而細滑者傷飲<仲景>

○偏弦爲飲或沈弦滑或結或伏痰飲中節<脈訣>

○脈理提綱曰痰脈弦滑

○三因曰飲脈皆弦微沈滑

○脈沈弦細滑大小不勻皆痰飲爲病也.<醫鑑>

○久得瀉脈必費調理盖痰膠固脈道阻澁也.<丹心>

9) ○脈微血氣俱虛年少者亡血也. 乳子下利爲可否者此爲居經三月一來

○少陰脈微而遲微則無精遲則陰中寒澁則血不來此爲居經三月一來<脈經>

○婦人漏下赤白日下血數升脈急疾者死遲者生

7) ○內經曰尺澁脈滑謂之多汗釋曰尺膚澁而尺脈滑也. 此自汗多而血涸津脫也.

○脈大而虛浮而濡者汗<正傳>

○脈訣曰汗脈浮虛或澁或濡軟散洪大渴飲無餘

○肝脈浮虛或濡或澁自汗在寸盜汗在尺<回春>

○脈經曰男子平人脈虛弱微細者喜盜汗出也.

○寸口脈微尺脈緊其人虛損多汗知陰常在絕不見陽也.<仲景>

○傷寒脈浮而遲面熱赤而戰惕者當汗出解也. 脈遲者爲無陽不能作汗其身必痒<仲景>

【脈法】

① 脈이 微한 것은 血氣가 다 虛한 것인데 나이가 젊은 사람이 이런 것은 피를 잃은 것이다. 젓먹이 어린이들이 泄瀉할 때 이런 脈이 나타난다. 居經이 되었을 때에는 이런 脈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때에는 月經이 3달에 한 번씩 나온다.

② 少陰脈이 微하거나 遲하다면 微한 것은 精이 없는 것이고 遲한 것은 陰部 속이 찬 것이다. 脈이 澁한 것은 月經이 나오지 않다가 居經이 된 것인데 이때에는 月經이 3달에 한 번씩 나온다.

③ 婦人이 벌겋고 흰 이슬이 흐르고 날마다 下血을 2흡 정도씩 할 때에 脈이 몹시 빠르면 죽고 遲하면 산다.

④ 婦人이 벌겋고 흰 이슬이 계속 나올 때에 脈이 小, 虛, 滑하면 살고 大, 緊, 實, 數하면 죽는다.

⑤ 寸關脈은 평상시와 같이 고르는데 오직 尺脈만이 끊어져서 뛰지 않는 것은 月經이 고르지 못한 것이다.

⑥ 尺脈이 뛰다가 끊어지는 것도 月經이 고르지 못한 것이다.

⑦ 肝脈이 沈한 것도 月經이 고르지 못한 것이다.

⑧ 尺脈이 滑한 것은 血氣가 實한 것인데 婦人이면 經脈이 고르지 못한 것이다.

⑨ 脈이 뛰는 모양이 거문고줄 같으면서 아랫배가 아픈 것은 주로 月水이 고르롭지 못하고 陰部에 헌데가 생긴 것이다.

⑩ 帶下가 있을 때 脈이 遲滑하면 좋고 浮虛하면 좋지 못하다.

9) 蟲部¹⁰⁾

- 婦人漏下赤白不止脈小虛滑者生大緊實數者死<脈經>
- 寸關調如故而尺脈絕不至者月水不利
- 尺脈來而斷絕者月水不利
- 肝脈沉主月水不利
- 尺脈滑血氣實也.婦人經脈不利
- 脈來至狀如琴絃若小腹痛主月水不利孔竅生瘡<脈經>
- 帶下之脈宜遲滑忌浮虛<醫鑑>

【脈法】

① 關上脈이 緊하면서 滑한 것은 蛔毒이 있기 때문이다.

② 脈이 沈하면서 滑한 것은 寸白蟲이 있기 때문이다.

③ 關脈이 약간 浮한 것은 胃속에 熱이 몰려 있기 때문인데 이때에는 蛔蟲을 吐하고 健忘症이 있다.

④ 모든 蟲證 때 脈이 沈實하면 살고 虛大하면 죽는다.

⑤ 尺脈이 沈滑한 것은 寸白蟲이 있는 것이다.

⑥ 蟲證 때의 脈은 반드시 沈하고 弱하면서 弦해야 하는데 도리어 洪大한 것은 蛔蟲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⑦ 勞瘵 때의 脈은 數하거나 거칠고 가늘다[濇細]. 이때에 만일 때맞추어 땀이 나고 기침할 때에 피가 나오면 살이 빠지면서 죽는다.

⑧ 蝕蟲이 陰門과 肛門을 파먹을 때 脈이 虛하면서 小하면 살고 勁急하면 죽는다.

10) 小便¹¹⁾

【脈法】

① 少陰脈이 數한 것은 여자이면 생식기에 헌데가

10)○關上脈緊而滑者蛔毒

○脈沈而滑者寸白蟲

○關上脈微浮積熱在胃中嘔吐蛔蟲心健忘<脈經>

○諸蟲脈沈實者生虛大者死

○尺脈沈而滑者爲寸白蟲

○蟲脈當沈弱而弦今反洪大卽知蛔蟲甚也.<正傳>

○勞瘵脈數或濇細如潮汗咳血肉脫者殂<回春>

○蟲蝕陰肛脈虛小者生勁急者死<正傳>

11)○少陰脈數婦人則陰中生瘡男子則氣淋

○腎脈滑實爲瘡瘻<仲景>

○遺精白濁當驗於尺結朮動緊二證之的<脈訣>

○便血則朮數則赤黃實脈癢閉熱在膀胱<脈訣>

○兩尺脈洪數必便濁遺精<正傳>

○淋脈盛大而實者生虛細而澁者死<脈經>

○瘡病脈細不治<綱目>

○淋病之脈細數何妨少陰微者氣閉膀胱女人見之陰中生瘡大實易愈虛澁則亡<醫鑑>

생긴 것이고 남자이면 氣淋이다.

② 腎脈이 滑하고 實한 것은 癥瘕이다.

③ 遺精과 白濁은 마땅히 尺脈에 徵驗할 症이니 結, 扞, 動, 緊의 脈은 위의 두가지 症의 的이 된다.

④ 便血하면 扞하고 數하면 赤黃하며 實脈이 癥閉함으로써 熱이 膀胱에 있다.

⑤ 양쪽 尺脈이 洪하고 數하면 반드시 便이 濁하고 遺精한다.

⑥ 淋脈이 盛大하고 實하면 살고 虛細하고 澁하면 難治이다.

⑦ 癥病에 脈이 細하면 다스리기 어렵다.

⑧ 淋病에 脈이 細하고 數하면 해롭지 않고 少陰脈이 澁하면 氣가 膀胱을 닫으니 女人이 그러하면 陰中에 瘡이 나고 大하고 實하면 낫기가 쉬우며 虛하고 澁하면 難治다.

11) 大便¹²⁾

【脈法】

① 泄瀉할 때 脈이 緩하거나 때로 小하면서 結한

것은 살 수 있고 浮大하면서 數한 것은 죽는다.

② 泄瀉할 때 脈이 洪하면서 大한 것은 나쁜 증상이다.

③ 泄瀉하면서 피를 몹시 흘렸을 때 脈이 實하면 치료하기 힘들다.

④ 泄瀉할 때의 脈은 주로 沈하다. 그러나 風邪에 상한 것이면 浮하고 寒邪에 상한 것이면 沈細하며 더위에 상한 것이면 沈微하고 濕邪에 상한 것이면 沈緩하다.

⑤ 泄瀉할 때의 脈은 주로 沈하다. 그러나 沈遲한 것은 寒邪에 상한 것이고 沈數한 것은 熱에 상한 것이며 沈, 虛, 滑, 脫한 것은 더위나 濕邪에 상한 것이다. 緩하고 弱한 脈은 여름철에 많이 나타난다.

⑥ 痢疾[腸澼]로 피곱[膿血]이 나오나 脈이 沈小하면서 끊어지지 않는 것은 살 수 있고 脈이 數하고 빠르거나 大하면서 몸에 열이 나는 것은 죽는다.

⑦ 痢疾[下痢] 때 脈이 微하고 弱하면서 數한 것은 나으려는 것이다. 이때에는 비록 몸에 熱이 있어도 죽지 않는다.

⑧ 痢疾 때 脈이 大하면 잘 낫지 않는다.

⑨ 痢疾로 하루에 泄瀉를 십여 번 하나 脈이 오히려 實한 것은 죽는다.

⑩ 痢疾 때 脈이 微하고 小하면 좋고 洪大하면 좋지 않다.

⑪ 痢疾 때 脈이 微하고 小하면 살 수 있고 大하고 浮하면서 洪하면 잘 낫지 않는다.

⑫ 積이 없으면 痢疾이 생기지 않는다. 痢疾 때에는 脈이 滑大하여야 하는데 浮弦하면 빨리 죽고 沈細하면 우려할 것이 없다.

⑬ 대체로 痢疾 때 몸이 싸늘하고[身涼] 脈이 細하면 살 수 있고 몸에 熱이 나고 脈이 大하면 죽는다.

⑭ 痢疾 때 脈이 微하고 小하면 좋고 浮하고 洪하면 치료하기 어렵다.

⑮ 大便이 막히고 脾脈이 沈數하면서 尺部까지 뛰는 것은 陽結이고 양쪽 尺脈이 虛하거나 沈細하면

12)○泄瀉脈緩時小結者生浮大數者死<正傳>

○病泄脈洪而大爲逆<靈樞>

○泄而脫血脈實者難治<內經>

○泄瀉脈多沈傷風則浮傷寒則沈細傷暑則沈微傷濕則沈緩<醫鑑>

○瀉脈自沈沈遲寒侵沈數火熱沈虛滑脫暑濕緩弱多在夏月<回春>

○腸澼下膿血脈沈小留連者生數疾且大有熱者死<脈經>

○下痢脈微弱數者爲欲自止雖發熱不死<仲景>

○下痢脈大者爲未止<仲景>

○下痢日十餘行脈反實者死<仲景>

○下痢宜微小不宜洪大<得效>

○下痢微小却爲生脈大浮洪無差日<脈訣>

○無積不痢脈宜滑大浮弦急死沈細無害<脈訣>

○凡痢身涼脈細者生身熱脈大者死<丹心>

○下痢脈微小吉浮洪者難治<濟生>

○大便閉結脾脈沈數下連於尺爲陽結二尺脈虛或沈細而遲爲陰結右尺脈浮爲風結<醫鑑>

○燥結之脈沈伏勿疑熱結沈數虛結沈遲若是風燥右尺浮也<回春>

○老人虛人閉結脈雀啄者不治<醫鑑>

서 遲한 것은 陰結이다. 오른쪽 尺脈이 浮한 것은 風結이다.

⑩ 燥結 때 脈이 침하고 伏하면 우려될 것이 없다. 熱結 때의 脈은 沈數하고 虛結 때의 脈은 沈遲하다. 風燥 때에는 오른쪽 尺脈이 浮肥한 法이다.

⑪ 老人 虛人の 閉結에 脈이 雀啄하면 難治다.

2. 脈法 - 外形篇

1) 頭¹³⁾

【脈法】

만약 頭痛 眼痛하고 脈이 急하고 短 濇하면 죽는다.

① 頭痛에 脈이 浮滑하면 낫기 쉽고 短濇하면 낫지 않는다.

② 頭痛에 短濇하면 죽음이 곧 이르고 浮滑한 症은 風痰이니 다스리기 쉬운 症이다.

③ 陽脈이 弦하면 頭痛을 의심할 바 없다.

④ 肝脈이 溢하고 大하면 반드시 眩暈하니 豫防하여야 한다.

⑤ 寸口脈中이 短한 症은 頭痛이 있는 까닭이다.

⑥ 寸口脈이 緊急하거나 혹은 浮하거나 短하고 혹은 弦한 症은 다 頭痛을 주관하는 症이다.

⑦ 頭痛에 陽이 弦하고 부하면 風이고 緊하면 寒

이고 風熱은 洪數하며 濕症은 細堅하고 氣虛頭痛은 비록 弦하나 반드시 濇하고 痰厥은 滑하고 腎厥은 堅實하다.

⑧ 風寒 暑濕, 氣鬱生涎, 下虛上實이 다 眩暈의 張本이 되며 風은 浮하고 寒은 緊하고 濕은 細하며 暑는 虛하고 生涎은 弦하며 滑하다. 虛脈은 脈象이 없는 듯한 것이다.

⑨ 腎厥頭痛은 그 脈이 들면 弦하고 누르면 緊하다.

⑩ 頭痛에 左手脈이 數한 症은 熱이요, 脈이 澁한 症은 死血이 있는 症이며, 右手脈이 實한 症은 痰積이 있는 경우요, 脈이 大한 症은 病이 오래된 까닭이다.

2) 眼¹⁴⁾

【脈法】

左寸脈이 洪하고 數하면 心火가 炎上하고 關脈이 弦하고 洪하면 肝火가 盛한 것이다.

右寸關이 함께 弦하고 洪하면 肝木이 相火의 勢를 꺼서 肺金을 누르고 脾土에 便乘한다.

① 눈병은 火가 그 根本이 되고 心과 肝에 병이 있고 右寸關에 脈이 數하고 洪하게 나타나고 相火上衝된 것이다.

② 눈에 黑花가 보이는 症은 腎虛로부터 일어나는 症이니 左水尺脈이 沈하고 數하면 그러하다.

3) 耳¹⁵⁾

13) 病若頭痛 目痛 脈急短濇者 死<綱目>

○頭痛 浮滑易除 短濇不愈<得效>

○頭痛 短濇 應須死 浮滑 風痰必易除<脈訣>

○陽脈弦者 頭痛無疑<脈訣>

○肝脈溢大 必眩暈 宜豫防之<入門>

○寸口脈中短者 頭痛也<正傳>

○寸口緊急 或浮 或短 或弦 皆主頭痛<醫鑑>

○頭痛 陽弦 浮風 緊寒 風熱洪數 濕細而堅 氣虛頭痛 雖弦必濇 痰厥則滑 腎厥堅實<脈訣>

○風寒暑濕 氣鬱 生涎 下虛 上實 皆暈而眩 風浮 寒緊 濕細 暑虛 涎弦而滑 虛脈則無<脈訣>

○腎厥頭痛 其脈舉之則弦 按之則堅<丹心>

○頭痛 左手脈數 熱也 脈澁 有死血也 右手脈實 有痰積也 脈大 是久病<丹心>

14) 左寸脈洪數 心火炎也 關脈弦而洪 肝火盛也

右寸關俱弦而洪 肝木挾相火之勢 侮肺金而乘脾土也<醫鑑>

○眼本火 病心肝 數洪右寸關見 相火上衝<回春>

○眼見黑花者 從腎虛而起 診左手尺脈 當沈而數者 是也<類聚>

15) 病耳聾 脈大者 生 沈細者 難治<脈經>

○左寸洪數 心火上炎 兩尺洪數 相火上炎 其人必遺精 夢泄 兩耳或鳴或聾<正傳>

○腎脈浮而盛爲風 洪而實爲熱 細而濇爲虛<醫鑑>

○耳病腎虛 遲滯其脈 浮大爲風 洪動火賊 沈瀇氣凝 數實熱塞 久病聾者 專於腎責 暴病浮洪 兩尺相同 或兩尺數 陰火上衝<回春>

【脈法】

귀가 먹고 脈이 크면 살고 沈細하면 難治이다.

① 左寸脈이 洪數하면 心火가 上炎하고 兩尺이 洪數하면 相火가 上炎하니 그렇게 되면 반드시 遺精 夢泄하고 두 귀가 울거나 먹거나 한다.

② 腎脈이 뜨고 盛하면 風이요 洪하고 實하면 熱이요 細하고 濡하면 虛이다.

③ 귀병에 腎이 虛하고 遲濡한데 그 脈이 뜨고 크면 風이요 넓고 움직이면 火가 있는 症이요 沈濡하면 氣가 凝結하고 잣고 實하면 熱이 閉塞하니 오랫동안 귀머리거리가 되는 症은 순전히 腎에 責이 있고 暴病에 脈이 浮洪하고 兩尺이 서로 같으며 혹은 數하면 陰火가 上衝한다.

4) 鼻¹⁶⁾

【脈法】

左寸脈이 浮하고 緩하면 傷風이 되므로 코가 막히고 콧물이 흐르며 右寸脈이 浮洪하고 數하면 鼻衄 鼻齧가 된다.

5) 口舌¹⁷⁾

【脈法】

左寸脈이 洪數하면 心이 熱하고 입이 쓰며 右寸脈이 浮數하면 肺가 熱하고 입이 메우며

左關이 弦數하면 膽이 虛하고 입이 쓰며 洪實하면 肝이 熱하고 입이 시며 右關이 沈實하면 脾가 熱하고 입이 달며 洪數하면 입에 瘡이 나고 혹은 重舌 木舌이 된다.

① 口舌에 瘡이 나는 것은 脈이 洪하며 疾하고 速한데 만약 脈이 虛하면 中氣가 不足한 症이다.

16) 左寸脈浮緩 爲傷風 鼻塞 流涕 右寸脈浮洪而數 爲鼻衄 鼻齧<正傳>

17) 左寸洪數 心熱口苦 右寸浮數 肺熱口辛 左關弦數 膽虛口苦 洪實 則肝熱口酸 右關沈實 脾熱口甘 洪數 則口瘡或爲重舌木舌<脈訣>

○口舌生瘡 脈洪疾速 若見脈虛 中氣不足<回春>

6) 牙齒¹⁸⁾

【脈法】

右關脈이 洪數하고 或은 弦하고 洪하면 腸胃中에 風熱이 있으며 牙痛하고 尺脈이 洪大하고 虛하면 腎이 虛한 法이니 이가 動搖하고 疎豁하며 相火가 炎上하여 아픈 法이다.

① 齒痛에 腎이 虛하고 尺脈이 濡하고 大하면 火가 炎上하고 尺脈이 洪하면 이가 성기고 童謠하고 빠지며 右寸關이 數하고 或은 洪하며 弦하면 이것은 胃腸風熱에 屬하니 침이 많다.

7) 咽喉¹⁹⁾

【脈法】

兩寸脈이 浮洪하고 溢한 症은 喉痺한 症이고 脈이 微하고 伏하면 죽는다.

① 咽喉의 脈이 兩寸이 洪溢한 症은 上盛 下虛한 症이고 대체로 脈의 微伏은 忌한다

8) 背²⁰⁾

【脈法】

腎脈이 緩한 症이 甚하면 脊이 구부러진다.

① 『內經』에 이르기를 寸口脈이 促하고 손가락을 上擊하면 肩背가 痛한다.

② 脈이 크면 心下에 留飲이 있으며 등이 寒冷하다.

③ 등이 惡寒을 甚히 하면 脈이 浮大하고 힘이 없으니 이것은 陽이 虛한 까닭이다.

18) 右關脈洪數 或弦而洪 腸胃中有風熱牙痛 尺脈洪大而虛者 腎虛 主齒動疎豁 相火上炎而痛<醫鑑>

○齒痛 腎虛 尺濡而大 火炎 尺洪 疎搖豁壞 右寸關數 或洪而弦 此屬腸胃風熱多涎<回春>

19) 兩寸脈浮洪而溢者 喉痺也 脈微而伏者死<正傳>

○咽喉之脈 兩寸洪溢 上盛下虛 脈忌微伏<回春>

20) 靈樞曰 腎脈緩甚 爲折脊

○內經曰 寸口脈中手 促上擊者 曰肩背痛

○脈大者 心下有留飲 其人背寒冷<仲景>

○凡背惡寒甚者 脈浮大而無力 是陽虛也<丹心>

9) 胸²¹⁾

【脉法】

脈이 陽은 微하고 陰이 弦하면 가슴이 麻痺하고 疼痛하니 陽이 微한 故로 上焦에 있음을 알 수 있고 陰이 弦한 故로 胸痺와 心痛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① 胸痺痛에 寸口脈이 沈하고 遲하며 關上이 小緊하고 數하다.

② 心腹痛에 沈細한 症이 보이는 것은 마땅하고 浮大한 症은 보이지 않아야 한다.

③ 心腹痛에 脈이 沈細해야 하고 浮大하고 弦長한 것은 忌한다.

④ 心腹痛에 脈이 沈細한 것은 좋으나 浮大하고 弦長한 것은 死脈이다.

⑤ 脈이 沈 弦 細 動이 다 痛症이니 心痛은 寸脈에 있고 腹痛은 關脈에 있고 下部는 尺脈에 있으니 脈의 形象이 顯然하게 나타나는 法이다.

⑥ 胸痞에 脈이 滑하면 痰이 있고 結하고 弦하고 伏하며 또 痞澁하면 氣가 劣한 症이다

⑦ 心痛에 左水脈이 數하면 熱이 많고 濇하면 死血이 있다. 右手脈이 緊하고 實하면 痰積이 있고 脈이 크면 久病한 症이니 兩手의 脈이 堅實하고 크지 않으면 可히 下할수 있는 法이요 痛이 甚하면 脈이 반드시 伏하는 法이다.

⑧ 痞病에 右關脈이 弦한 症이 많으니 弦하고 遲하면 반드시 心下가 堅한 法이다.

⑨ 心脈이 微하고 急하면 痛하고 微하며 大하면 心이 痺하고 등이 牽引하여 疼痛하며 短하고 數하거나 혹은 그저 濇하면 心이 疼痛하는 症이다.

10) 腹²²⁾

【脉法】

尺脈이 弦하면 腹痛한다.

① 脈이 細小하고 緊急하면 刺痛한다.

② 陰弦하면 腹痛한다.

③ 弦急하면 小腹이 痛한다.

④ 尺脈이 緊하면 臍下가 痛한다.

⑤ 尺脈이 伏하거나 實하면 小腹이 痛한다.

⑥ 心腹痛에 숨을 쉬지 못하고 脈이 細小하며 더딘 症은 살고 크고 빠른 症은 죽는다.

⑦ 腹痛에 脈이 도리어 浮大하고 길면 죽는다.

⑧ 心腹痛에 脈이 沈細한 症은 좋고 浮大弦長한 症은 나쁘다

11) 腰²³⁾

【脉法】

눌러서 뼈에까지 이르러 脈氣가 적은 症은 腰脊이

21) 脉陽微陰弦 則胸痺而痛 陽微 故知在上焦 陰弦 故知胸痺心痛<仲景>

○胸痺痛 寸口脉沈而遲 關上小緊而數<仲景>
 ○心腹痛 宜見沈細 不宜見浮大<得效>
 ○心腹痛 脉宜沈細 忌浮大弦長<醫鑑>
 ○心腹痛 脉沈細宜 浮大弦長命必殞<脉訣>
 ○沈弦細動 皆是痛證 心痛在寸 腹痛在關 下部在尺 脉象顯然<脉訣>
 ○胸痞 脉滑爲有痰結 弦伏亦痞 澁則氣劣<脉訣>
 ○心痛 左手脉數熱多也 脉濇有死血也 右手脉緊實是痰積也 脉大必是久病也 兩手脉堅實不大便 可下之 痛甚者脉必伏<丹心>
 ○痞病 右關脉多弦 弦而遲者 必心下堅<正傳>
 ○心脉 微急爲痛 微大爲心痺引背痛 短而數或濇者心痛 <正傳>

22) 尺脉弦則腹痛<醫鑑>

○脉細小緊急腹中刺痛
 ○陰弦則腹痛
 ○弦急小腹痛
 ○尺脉緊臍下痛
 ○尺脉伏或實小腹痛<脉經>
 ○心腹痛不得息脉細小遲者生堅大疾者死
 ○腹痛脉反浮大而長者死<脉經>
 ○心腹痛脉沈細宜浮大弦長命必殞<脉訣>
 23) 按之至骨 脉氣少者 腰脊痛而身有痺也<內經>
 ○尺脉沈 腰背痛
 ○腰痛之脉 皆沈弦 沈弦而緊者爲寒 沈弦而浮者爲風 沈弦而濡細者爲濕 沈弦而實者爲挫閃<脉經>
 ○腰痛脉 必沈而弦 沈爲滯 弦爲虛 澁是瘀血 緩者是濕 滑者伏者是痰 大者是腎虛也<丹心>

疼痛하고 몸에痺가 있다

① 尺脈이 沈하면 腰背가 疼痛한다.

② 腰痛의 脈이 본래 沈弦한 것이니 沈弦하고 緊한 症은 寒이요 沈弦하고 浮한 症은 風이요 沈弦하고 濡細한 것은 濕이요 沈弦하고 實한 것은 挫閃이 되는 것이다.

12) 脇²⁴⁾

【脈法】

寸口脈이 弦한 症은 즉 脇下가 拘急해서 疼痛하는 症이니 齶齶하고 寒을 싫어한다.

① 脈이 雙으로 弦한 症은 肝氣가 남음이 있고 兩脇이 作痛한다.

② 肝脈이 沈하고 急하며 浮해도 또한 上症과 같은 症이 나타난다. 만약 脇下가 疼痛하고 氣가 支滿하고 小腹을 끌어서 痛할 때에 小便이 難苦하고 目眩 頭痛하며 腰背가 疼痛하는 症은 少時에 높은데서 墜落한 일이 있기 때문이다.

③ 肝脈이 搏하며 堅하고 길며 色이 푸르지 않은 症은 墜墮한데 病든 症이요. 만약 脈의 搏한 症이 피가 脇下에 있음으로 因한 症이면 반드시 喘逆이 兼한다

④ 肝脈이 軟하고 散하며 그 色이 潤澤한 症은 溢飲이 있으니 溢飲이란 症은 暴渴하므로 많이 마시어 皮膚와 腸胃 밖으로 溢入하는 症이다.

⑤ 氣鬱하고 胸脇이 疼痛한데 그 脈이 沈澁하면 鬱로 다스려야 되는 法이다.

24) 寸口脈弦者即脇下拘急而痛其人齶齶惡寒也<仲景>

○脈雙弦者肝氣有餘兩脇作痛<正傳>
○肝脈沉之而急浮之亦然若脇下痛有氣支滿引小腹而痛時小便難苦目眩頭痛腰背痛得之少時有所墜墮<正傳>
○肝脈搏堅而長色不青當病墜若搏因血在脇下令人喘逆<內經>
○肝脈軟而散其色澤者當病溢飲溢飲者渴暴多飲而溢入肌皮腸胃之外也<內經>
○氣鬱胸脇痛看其沉澁當作鬱治也<丹心>

13) 皮²⁵⁾

【脈法】

脈이 浮하고 大한데 浮한 症은 風이 虛한 症이요 大한 症은 氣가 강한 症이며 風과 氣가 서로 攻搏하면 癩疹이 되어 신체가 가려우면 泄風이 되고 또 오래되면 痲癩가 된다.

① 斑疹의 脈은 陽은 浮하고 數하며 陰은 實하고 大하며 火가 盛하면 表이다. 故로 陽脈은 浮하고 數한 法이요 下焦는 實하고 熱한 故로 陰脈은 實하고 大하다. 上症의 脈은 沈과 伏이 많고 或은 細하고 散하며 或은 끊어지고 없는 수도 있다

② 滑伯仁이 가로되 脈은 血의 波瀾인데 發斑이란 症은 血이 皮膚에 흘러지는 症이므로 脈이 伏한다.

③ 脈이 浮하고 濡한 症은 氣血虛에 屬하니 關前이 그러하면 麻痺가 上體에 있고 關後가 그러하면 麻痺가 下體에 있다.

④ 脈이 浮하고 緩한 症은 濕에 屬한 症이니 麻痺가 되고 緊하고 浮한 症은 寒에 屬하니 痛痺가 되며 濇하고 芤한 症은 死血에 屬하니 木이 되므로 痛하고 가려운 것을 모른다.

14) 足²⁶⁾

25) 脈浮而大浮爲風虛大爲氣強風氣相搏以成癩疹身體爲痒痒者名泄風久久爲痲癩<仲景>

○斑疹之脈陽浮而數陰實而大火盛而表故陽脈浮數下焦實熱故陰脈實大<正傳>
○脈多沈伏或細而散或絕無<正傳>
○滑伯仁曰脈者血之波瀾發癩者血散於皮膚故脈伏<正傳>
○脈浮而濡屬氣虛關前得之麻在上體關後得之麻在下體<正傳>
○脈浮而緩屬濕爲麻痺脈緊而浮屬寒爲痛痺脈濇而芤屬死血爲木不知痛痒<正傳>

26) 脚氣之脈其狀有四浮弦爲風濡弱濕氣遲濇因寒洪數熱鬱<脈訣>

○微滑者虛牢堅者實<正傳>
○脚氣之脈浮爲風緊爲寒緩細爲濕洪數爲熱又曰沈而弦者爲風沈而緊者爲寒沈細爲濕沈數爲熱<三回>
○脾脈緩甚痿厥<內經>
○尺脈虛弱緩濇而緊病爲足痛或是痿病<脈訣>

【脈法】

脚氣의 脈은 그 形象이 넷이 있으니 浮 弦은 風이 되고 濡 弱은 濕이요 遲 澹은 寒이요 洪 數은 熱鬱한 症이다.

① 脈이 微, 滑한 症은 虛한 症이요 牢 堅한 것은 實한 症이다.

② 脚氣의 脈이 浮한 症은 風이요 緊한 症은 寒이요 緩細한 症은 濕이요 洪數한 症은 熱이 되는 症이다. 또는 沈하면서 弦한 症은 風이 되고 沈하면서 緊한 症은 寒이 되고 沈細한 症은 濕이 되고 沈數한 症은 熱이 되는 것이다.

③ 脾脈이 甚히 緩하면 痿厥이 된다.

④ 尺脈이 虛 弱하고 緩 澹하면서 緊하면 足痛이나 或은 痿痺이 되는 症이다.

⑤ 痿脈은 浮하고 大하다.

⑥ 痿와 躄을 진찰할 때에 그 脈이 虛하면 살고 緊急하고 빠르면 죽는다.

15) 前陰²⁷⁾

【脈法】

○痿脈多浮而大<子和>

○診人痿躄其脈虛者生緊急疾者死<脈經>

27)內經 皆以滑脈爲疝<入門>

○心脈搏滑急爲心疝 肺脈沈搏爲肺疝 腎脈肝脈大急沈皆爲疝<內經>

○肝脈滑甚爲癘疝 心脈微滑爲心疝 腎肝滑甚爲癘疝<內經>

○腎脈大甚爲陰痿<綱目>

○脈急者曰疝瘕小腹痛<內經>

○三陽急爲瘕 三陰急爲疝 註曰 太陽受寒 血聚爲瘕 太陰受寒 氣聚爲疝<內經>

○腎脈小急 肝脈小急 心脈小急 不鼓皆爲瘕 註曰 小急爲寒甚 不鼓則血不流 故血內凝而爲瘕<內經>

○疝脈弦急 積聚在裏 牢急者生 弱急者死 沈遲浮澀 疝瘕寒痛 痛甚則伏或細或動<脈訣>

○寸口脈弦而緊 弦緊相搏則爲寒疝<正傳>

○婦人 少陰脈滑而數者 陰中生瘡 少陰脈浮而動 浮則爲虛 動則爲痛 婦人則陰脫下<脈經>

○疝瘕積聚 脈弦急者生 虛弱小者死<脈經>

內經에는 滑한 脈을 모두 疝으로 看做하였다

① 心脈이 搏이 滑 急하면 心疝이 되고 肺脈이 沈搏하면 肺疝이 되고 腎脈과 肝脈이 大急沈하면 모두 疝이 된다.

② 肝脈의 滑한 것이 甚하면 癘疝이 되고 心脈이 微하고 滑하면 心疝이 되고 腎, 肝脈이 滑한 것이 甚하면 癘瘕가 된다.

③ 腎脈이 甚히 크면 陰痿가 된다.

④ 脈이 急하면 疝瘕가 되니 小腹이 疼痛한다.

⑤ 三陽이 急하면 瘕가 되고 三陰이 急하면 疝이 된다. 註에 가로되 太陽이 寒을 받으면 血이 모여서 瘕가 되고 太陰이 寒을 받으면 氣가 모여서 疝이 된다.

⑥ 腎脈 肝脈 心脈이 다 小하고 急하며 鼓하지 않으면 모두 瘕가 되는 것이다. 註에 가로되 小하고 急한 것은 寒이 甚한 것이니 鼓하지 않으면 血이 흐르지 않는 故로 血이 안에서 凝結하여 瘕가 되는 것이다.

⑦ 疝의 脈이 弦 急하면 積聚가 속에 있는 것이니 牢하고 急하면 살고 弱하고 急하면 죽고 沈, 遲, 浮, 澀한 것은 다 疝瘕가 寒痛하는 것인데 痛이 甚하면 或은 伏하고 或은 細하고 或은 動한다.

⑧ 寸口脈이 弦하고 緊해서 弦 緊이 서로 攻搏하면 寒疝이 되는 것이다.

⑨ 婦人の 少陰脈이 滑하고 數한 것은 陰孔가운데 瘡이 난 것이요 少陰脈이 浮하고 動할 경우 浮하면 虛가 되고 動하면 痛이 되며 婦人이면 陰이 脫下한다.

⑩ 疝瘕와 積聚의 脈이 弦急한 것은 살고 虛弱하고 작으면 죽는다.

16) 後陰²⁸⁾

28) 蠶蝕肛陰 其脈虛小者生 緊急者死<脈經>

○凡痔脈沈小實者易治 浮洪而軟弱者 難愈<正傳>

○便血則芤 數則赤黃 實脈癰閉 熱在膀胱<醫鑑>

【脈法】

蟲이 肛門을 먹는데 그 脈이 虛小하면 살고 緊急한 症은 죽는다.

① 무릇 痔脈이 沈小하고 實한 症은 易治요 浮洪하고 軟弱한 症은 難治다.

② 便血하면 扞하다. 數하면 赤 黃하며 實脈이면 癰閉하니 熱이 膀胱에 있는 것이다.

3. 脈法 - 雜病篇

1) 風 29)

【脈法】

中風의 脈이 큰 것은 熱이 아니며 風脈이다

① 寸口脈이 浮하고 緊한데 緊하면 寒이 되고 浮하면 虛가 되며 寒과 虛가 서로 攻搏하면 邪가 皮膚에 있고 絡脈이 텅비어서 賊邪가 瀉하지 않고 或은 左로 或은 右로 하여 邪氣가 도리어 緩해지고 正氣가 急해지면 正氣가 邪를 끌어 喎斜하여서 不遂가 되고 邪가 絡에 있으면 肌膚가 不仁하고 邪가 經에 있으면 무거워서 이기지 못하고 邪가 腑로 들어가면 사람을 알지 못하고 邪가 臟에 들어가면 혀가 굳어서 말하기가 거북하고 口沫을 吐한다.

② 中風에 입을 다물었는데 脈이 遲하고 浮하면

29) 凡中風脈 無不大者 非熱也 是風脈也<得效>

○寸口脈 浮而緊 緊則爲寒 浮則爲虛 寒虛相搏 邪在皮膚 絡脈空虛 賊邪不瀉 或左或右 邪氣反緩 正氣即急 正氣引邪 喎僻不遂 邪在于絡 肌膚不仁 邪在于經 即重不勝 邪入于府 即不識人 邪入于藏 舌即難言 口吐涎沫 <仲景>

- 中風口噤遲浮吉 急實大數三魂孤<脈訣>
- 中風脈 遲浮可治 大數而極者死<丹心>
- 中風脈浮滑 兼痰氣 其或沈滑 勿以風治 或浮或沈而微而虛 扶危溫痰 風未可疎<脈訣>
- 大法 浮遲者吉 急疾者凶
- 脈浮而遲者易治 大數而急者死<脈經>
- 脈浮而大者 曰風
- 脈浮而數 中風使然<仲景>

吉하고 急, 實, 大, 數하면 三魂이 외로운 것이다.

③ 中風에 脈이 遲하고 浮하면 다스리는 것이요 大하고 數해서 極하면 다스리지 못한다.

④ 中風에 脈이 浮하고 滑하며 兼하여 痰氣가 있으면서 或은 沈滑하면 風으로 다스리지 말 것이며 或浮, 或沈하고 微하면서 虛한 것은 위태함을 잘 부지하고 痰을 덩게 할 것이며 風을 疏散해서는 안된다.

⑤ 大法에 脈이 浮하고 遲하면 吉하고 疾하고 急하면 凶한 것이다.

⑥ 脈이 浮하고 遲하면 다스리기가 쉽고 大하고 數해서 極하면 죽는다

⑦ 脈이 浮하고 大한 것은 風이다.

⑧ 脈이 浮하고 數하면 中風이다.

2) 寒30)

30) 凡治傷寒 以脈爲先 以證爲後 凡治雜病 以證爲先 以脈爲後 大抵 治傷寒見證未見脈 未可按藥 見脈未見證 雖小投藥亦無害也<祇和>

- 緊脈爲傷寒<脈訣>
- 傷寒之脈 陰陽俱盛而緊瀯<脈經>
- 脈盛身寒 得之傷寒<內經>
- 弦緊爲寒脈<脈經>
- 傷寒脈大浮數動滑 此名陽也 沈瀯弱弦微 此名陰也 凡陰病見陽脈者生 陽病見陰脈者死<脈經>
- 熱病須得脈浮洪 細小徒費用神功 汗後脈靜當便瘥 喘熱脈亂命應終<脈訣>
- 寒傷太陽 脈浮而瀯 及傳而變 名狀難悉 陽明則長 少陽則弦 太陰入裏 遲沈必兼 及入少陰 其脈遂緊 厥陰熱甚 脈伏厥冷
- 在陽當汗 次利小便 表解裏病其脈實堅 此其大略治法之正 至於大法自有仲景
- 傷寒有五脈 非一端 陰陽俱盛緊澁者寒 陽浮而滑 陰瀯而弱 此名傷風 勿用寒藥
- 陽瀯而弱 陰小而急 此非風寒 乃濕溫脈
- 陽脈浮滑 陰脈瀯弱 或過於風 變成風溫
- 陽脈洪數 陰脈實大 更遇溫熱 變成溫毒
- 陽脈瀯弱 陰脈弦緊 更遇濕氣 變爲濕溫
- 陰陽俱盛 重感於寒 變爲溫瘧 同病異名
- 陰陽俱盛 病熱之極 浮之而滑 沈之散澁<脈訣>
- 中寒緊澁 陰陽俱盛 法當無汗 有汗傷命<回春>
- 傷寒熱病 脈宜洪大 忌沈細<醫鑑>

【脉法】

무릇 傷寒을 다스리는데는 脈을 먼저하고 症을 뒤에 하며 雜病을 다스리는데는 症을 먼저하고 脈을 뒤에 하는 것이니 대체로 傷寒을 다스리는 法이 症은 보았으나 脈을 보지 못하면 藥을 쓰지 못하는 것이요 脈을 보았으면 症을 보지 못하였어도 조금씩 投藥을 해도 無妨한 것이다.

- ① 緊脈이 傷寒이 된다.
- ② 傷寒의 脈이 陰陽이 함께 盛하고 緊하고 瀦하다.
- ③ 脈이 盛하고 몸이 찬 것은 傷寒에서 얻은 것이다.
- ④ 弦하고 緊한 것이 寒脈이 된다.
- ⑤ 傷寒의 脈이 大浮數動滑하면 이것은 陽인 것이요 沈瀦弱弦微하면 이것은 陰인 것이니 陰病에 陽脈이 보이는 것은 살고 陽病에 陰脈이 보이는 것은 죽는다.

⑥ 熱病에는 脈이 浮하고 洪하는 것이 원칙인데 細하고 小하면 藥을 써보았자 功力만 허비하는 것이다. 또 땀을 낸 뒤에는 脈이 靜하고 病이 差度가 있어야 할 것인데 도리어 喘하고 熱하고 脈이 亂하면 멀지 않아 죽는다.

⑦ 寒이 太陽을 傷하면 脈이 浮하고 瀦한 것인데 그것이 傳變하면 脈狀을 이름하기가 어렵다. 陽明은 長하고 少陽은 弦하며 太陰에 들어가면 遲하고 沈한 것을 반드시 兼하고 또 少陰에 들어가면 그 脈이 緊하며 厥陰에 熱이 甚하면 脈이 伏하고 厥冷하다.

⑧ 病이 陽에 있으면 마땅히 땀을 내어야 하고 다 음은 小便을 利하게 하여야 한다. 表解하고 裏病은 남아 있으면 그 脈이 堅하고 實한 것이다. 이것이 대략적인 治法이요 治療의 大法은 仲景에 의한다.

⑨ 傷寒에 五脈이 있어 한가지가 아니다. 陰陽이 함께 盛하며 脈이 緊하고 瀦한 것은 寒이요.

⑩ 陽은 浮하고 滑하며 陰은 濡하고 弱하니 이것을 傷風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寒藥을 쓰면 안된다.

⑪ 陽脈은 濡하고 弱하며 陰脈은 小하고 急하니

○中寒之脉 虛而微細<醫鑑>

이것은 風寒이 아니요 즉 濕溫脈이다.

陽脈은 浮하고 滑하며 陰脈은 濡하고 弱한 것인데 혹 風을 만나면 變해서 風溫을 이루는 것이다.

⑫ 陽脈은 洪하고 數하며 陰脈은 實하고 大한 것인데 다시 溫熱을 만나면 變해서 溫毒이 된다.

⑬ 陽脈이 濡弱하고 陰脈이 弦緊하고 다시 濕氣를 만나면 變해서 濕溫이 된다.

⑭ 陰陽이 함께 盛하고 거듭 寒에 感하면 變해서 溫瘡이 되는데 病은 같으나 이름은 다르다.

⑮ 陰陽이 함께 盛하고 熱에 病들기를 極하게 하면 가볍게 누르면 滑하고 무겁게 누르면 散하고 澁하다.

⑯ 中寒에 緊하고 澁하며 陰陽이 함께 盛하면 法에는 땀이 없는 것인데 땀이 있으면 命을 傷한다.

⑰ 傷寒의 熱病에 脈이 마땅히 洪大해야 되는 것인데 沈細한 것은 忌한다.

⑱ 中寒의 脈은 虛하고 微細하다.

3) 暑³¹⁾

【脉法】

暑에 傷한 脈은 虛하다.

① 脈이 虛하고 몸이 熱한 症은 傷暑에 起因한다.

② 暑가 氣를 傷하면 脈이 虛弦細 扞遲하고 體狀이 餘地가 없다.

③ 中暑한 脈은 陽은 弱하고 陰은 虛하여 微하고 遲하여서 扞한 것과 같다

④ 暑脈이 弦細 扞遲한 症은 어떤 까닭인가? 대개 寒이 形을 傷하고 熱이 氣를 傷하는 法인데 氣가 傷하면 氣가 사라지고 脈이 虛弱해지는 法이니

31) 傷暑脉虛

○脉虛身熱得之傷暑(脉一作氣)<仲景>

○暑傷於氣所以脉虛弦細扞遲體狀無餘<脉訣>

○中暑之脉陽弱陰虛微遲似扞<三因>

○暑脉弦細扞遲何也蓋寒傷形熱傷氣氣傷則氣消而脉虛弱所以弦細扞遲皆虛脉也<本草>

○暑脉虛而微弱或浮大而散或隱不見夫微弱隱伏皆虛類也<正傳>

○中暑與熱病相似但熱病脉盛中暑脉虛以此辨之<活人>

그러므로 弦 細 芤 遲한 症은 다 虛脈이다.

⑤ 暑脈은 虛하고 微弱하며 或은 浮大하고 홀어 지며 或은 숨어서 보이지 않으니 대개 微弱하고 隱伏한 것은 다 虛煩한데서 起因한다.

⑥ 中暑가 熱病과 비슷하나 다만 熱病은 脈이 盛하고 中暑는 脈이 虛한 것으로써 區分하면 된다.

4) 濕³²⁾

【脈法】

濕에 傷한 脈은 細하고 濡하다.

- ① 濕熱의 脈은 緩하고 大하다.
- ② 或澁하고 或細하고 或濡하고 或緩한 것은 모두 中濕으로 因한 것임을 斷定할수 있다.
- ③ 脈이 浮하고 緩한 것은 濕이 表에 있는 것이요 沈하고 緩한 것은 濕이 裏에 있다.
- ④ 脈이 弦하면서 緩하고 或은 緩하면서 浮한 症은 다 風濕이 서로 攻搏한 症이다.

⑤ 身痛하고 脈이 沈한 症은 中濕이요 脈이 浮한 症은 風濕이 된다.

5) 燥³³⁾

【脈法】

燥에 傷하면 脈이 澁한다

① 脈이 緊하고 澁하며 或은 浮하고 弦하고 或은 芤하고 虛한 것이다.

6) 火³⁴⁾

32) 傷濕之脈細濡<入門>

- 濕熱之脈緩大<脈訣>
- 或澁或細或濡或緩是皆中濕可得而斷<脈訣>
- 脈浮而緩濕在表也 脈沈而緩濕在裏也<脈訣>
- 脈弦而緩或緩而浮皆風濕相搏也<脈經>
- 身痛脈沈爲中濕 脈浮爲風濕<活人>

33) 傷燥脈澁<入門>

- 脈緊而澁或浮而弦或芤而虛<正傳>

34) 火脈洪數 虛則浮<脈訣>

- 脈實數者 有實熱<丹心>

【脈法】

火脈은 洪數한 法인데 虛하면 浮한다.

- ① 脈이 實하고 數한 것은 實熱이 있는 症이다
- ② 脈이 浮하고 洪數하면 虛火가 있는 것이요
- ③ 脈이 沈하고 實하면 實火다.
- ④ 洪數이 左寸에서 나타나면 心火가 있고 右寸에서 나타나면 肺火가 있고 左關에서 나타나면 肝火가 있고 右關에서 나타나면 脾火가 있으며 兩尺에서 나타나면 腎經命門의 火가 있는 것이다.
- ⑤ 男子의 兩尺이 洪大한 것은 반드시 遺精하고 陰火가 盛한 것이다.
- ⑥ 骨蒸과 勞熱의 脈은 數하고 虛하며 熱하고 澁하고 小하니 반드시 그 形體를 덜고 汗을 더하고 咳를 더하면 藥으로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다.
- ⑦ 虛火는 浮數하고 實火는 沈大한 것이니 그의 보이는 바를 따라서 다스리는데 細數하면 해롭다.

7) 內傷³⁵⁾

- 脈浮而洪數 爲虛火
- 脈沈而實大 爲實火
- 洪數見於左寸 爲心火
- 見於右寸 爲肺火
- 見於左關 爲肝火
- 見於右關 爲脾火
- 見於兩尺 爲腎經命門之火
- 男子兩尺洪大者 必遺精 陰火盛也<正傳>
- 骨蒸勞熱 脈數而虛熱 而澁小 必損其軀 加汗加咳 非藥可治<脈訣>
- 虛火浮數 實火沈大 隨其所見 細數爲害<回春>
- 35) 趺陽脈浮而數 浮則傷胃 數則傷脾 邪氣獨留心中 卽飢邪熱不殺穀 潮熱發渴
- 寸口脈弱而遲 弱者衛氣微 遲者榮中寒 榮爲血 血寒則發熱 衛爲氣 氣微者心內飢 飢而虛滿 不能食也
- 寸口脈弱而緩 弱者陽氣不足 緩者衛氣有餘 噫而吞酸 食卒不下 氣填於膈上也 註曰 胃中有未消穀 故噫而吞酸
- 寸口脈緊 胸中有宿食不化
- 脈緊如轉索無常者 有宿食也<仲景>
- 陽脈滑而緊 滑則胃氣實 緊則脾氣傷 得食不消者 此脾不和也

【脉法】

跌陽脈이 浮하고 數한 경우, 浮한 것은 胃를 傷한 症이요 數한 것은 脾를 傷한 症이다. 邪氣가 홀로 心中에 留하면 飢하고 邪熱이 穀을 죽이지 못하므로 潮熱하고 渴을 發한다.

① 寸口脈이 弱하고 遲한 경우, 弱한 것은 衛氣가 微한 症이요 遲한 것은 榮이 寒한 症이며, 榮이 血이 되는 것인데 血이 寒하면 發熱하고, 衛는 氣가 되는 것인데 氣가 微하면 心內가 주리고 주리면 虛滿하므로 能히 먹지 못한다.

② 寸口脈이 弱하고 緩한 경우, 弱한 것은 陽氣가 不足한 것이요 緩한 것은 衛氣가 有餘한 것이니 트림하고 吞酸하고 먹는 것이 갑자기 내리지 않고 氣가 膈上에 가득한 것이다. 註에 가로되 胃中이 消化되지 못한 穀이 있는 故로 트림하고 吞酸하는 法이다.

③ 寸口脈이 緊하면 胸中에 宿食이 消化되지 않은 것이 있는 것이다.

④ 脈이 緊해서 새끼를 꼬는것같고 일정하지 않는 것은 宿食이 있다.

⑤ 陽脈은 滑하고 緊한 경우, 滑한 것은 胃氣가 實한 것이요 緊한 것은 脾氣가 傷한 것이니 먹어도 消化하지 못하니 이것은 脾가 不和한 것이다.

⑥ 脈이 浮滑하고 빠른 것은 飲食이 消化되지 않고 脾가 갈지 못한다.

⑦ 氣口가 緊盛하면 飲食에 傷한 症이니 飲食이 소화되지 않으면 浮滑하고 疾한 것이다.

- 脉浮滑而疾者 食不消 脾不磨也<東垣>
- 氣口緊盛 爲傷於食 食不消化 浮滑而疾<脉訣>
- 內傷勞役 豁大不禁 若損胃氣 隱而難尋 內傷飲食 滑疾浮沈<脉訣>
- 右寸氣口脉 急大而數 時一代而澁 此飲食失節 勞役過甚 太過之脉也
- 右關胃脉損 弱甚則隱而不見 但內顯脾脉之大數微緩 時一代 此飲食不節 寒溫失所之脉也
- 右關脉沈而滑 此宿食不消之脉也<正傳>
- 宿食不消 則獨右關脉沈而滑 經云 脉滑者 有宿食也<丹心>

⑧ 勞役으로 內傷한 症은 脈이 豁大함을 禁하지 못하고 만약 胃氣를 損傷시켰으면 숨어서 찾기가 어렵고 飲食으로 內傷한 症은 脈이 滑 疾 浮 沈한다.

⑨ 右寸 氣口脈이 急하고 大하면서 數하고 때로 한번씩 代하고 澁한 것은 음식이 失節하고 勞役이 過甚하므로 大過의 脈이 나오는 것이다.

⑩ 右關의 胃脈이 損傷되어 弱한 것이 甚하면 숨어서 보이지 않고 다만 안으로 脾脈의 大 數微 緩하면서 때로 한번씩 代하게 나타나는 것은 飲食을 調節하지 못하고 寒溫을 失宜한 症이다.

⑪ 右關脈이 沈하면서 滑한 것은 宿食이 消化되지 않은 脈이다.

⑫ 宿食이 消化되지 않으면 右關脈이 홀로 沈하면서 滑하게 된다. 經에 이르되 脈이 滑한 것은 宿食이 있다고 하였다.

8) 虛勞³⁶⁾

36) 平人脉大爲勞 脉極虛亦爲勞<仲景>

○氣虛則脉弦 血虛則脉大<靈樞>

○凡人脉虛細弱者 勞也

○脉弦而大 弦則爲減 大則爲芤 減則爲寒 芤則爲虛 虛寒相搏 此名爲革 婦人則半產漏下 男子則亡血失精<仲景>

○寸口脉微而澁 微者衛氣衰 澁者榮氣不足 衛氣衰 面色黃 榮氣不足 面色青 榮爲根 衛爲葉 榮衛俱微 則根葉槁枯 而寒慄咳逆 唾腥吐涎沫<仲景>

○脉來軟者 爲虛

○緩者 爲虛

○微者 爲虛

○弱者 爲虛

○弦者 爲中虛

○脉細而微者 血氣俱虛 脉小者 血氣俱少

○脉大而芤者 脫血血虛 脉大如葱管

○脉沈者遲者 脫氣<脉經>

○平脉弦大 勞損而虛 大而無力 陽衰易扶 數而無力 陰火難除 寸弱上損 浮大裏枯 尺寸俱微 五勞之軀 血羸左濡 氣惟右推 左右微小 氣血無餘<回春>

○男子久病 氣口脉弱則死 強則生

○女人久病 人迎脉強則生 弱則死<丹心>

○虛勞之脉 大抵 多弦 或浮大 或數大者 易治 血氣未定 可斂而正也 弦者難治 血氣已耗 未易調補 若帶雙弦 則

【脈法】

平人으로서 脈이 크면 虛勞가 있는 症이요 脈이 極히 虛해도 또한 虛勞인 症이다.

① 氣가 虛하면 脈이 弦하고 血이 虛하면 脈이 크다.

② 脈이 虛하고 細하며 弱한 症은 虛勞요 脈이 弦하고 大한데 弦한 것은 減脈이요 大한 것은 托脈이다. 減脈은 寒하고 托脈은 虛하니 虛와 寒이 서로 치면 革이라고 이름하는데 婦人이면 流産하고 血이 漏下하며 男子면 血을 亡하고 精을 잃는다.

③ 寸口脈이 微하고 澁한데 微한 것은 衛氣가 衰한 症이요 澁한 것은 榮氣가 不足한 症인데 衛氣가 衰하면 얼굴빛이 萎黃하고 榮氣가 不足하면 얼굴빛이 푸르니 榮이 根이 되고 衛는 葉이 되는 法이다. 榮과 衛가 함께 微하면 根과 葉이 枯槁하고 寒慄하고 咳逆하고 비린내를 뱉고 涎沫을 吐한다.

④ 脈이 오는 것이 軟하면 虛한 症이요 緩한 것도 虛한 것이요 微한 것도 虛한 것이요 弱한 것도 虛한 症이다.

⑤ 脈이 弦한 것은 中虛인 것이다.

⑥ 脈이 細하고 微한 것은 血氣가 함께 虛한 症이요

⑦ 脈이 작은 것은 血氣가 함께 작은 症이다.

⑧ 脈이 大하고 托한 것은 奪血하고 血虛한 症이니 脈이 크기가 葱管과 같은 것이다.

⑨ 脈이 沈하고 遲한 것은 脫氣한 症이다.

⑩ 平脈이 弦하고 大하면 勞損해서 虛한 症이요

⑪ 大하면서 無力한 것은 陽이 衰했으나 扶持해 나가고 數하면서 無力한 症은 陰火를 除하기가 어렵고 寸脈이 弱하면 胃를 損하고 浮하고 大하면 속이 枯槁한 症이요 尺脈과 寸脈이 함께 微하면 五勞의 몸에 血이 羸하고 왼쪽이 濡하면 氣가 오직 오른쪽으로 모이고 左右가 다 微細하면 氣와 血이 다 남음이 없는 것이다.

爲賊邪侵脾 尤爲難治 加數極 則殆<直指>

⑫ 男子의 久病에 氣口脈이 弱하면 죽고 强하면 사는 法이며 女人의 久病에 人迎脈이 强하면 살고 弱하면 죽는다.

⑬ 虛勞의 脈이 대체로 弦한 것이 많은데 或은 浮大하거나 或은 數大한 것은 다스리기가 쉽고 또 血과 氣가 定하지 않은 것은 藥을 마셔서 바로 할 수가 있는 法이다. 그러나 弦한 것은 다스리기가 어려우니 血氣가 이미 耗損하여 調補하기가 쉽지 않고 만약 雙弦을 대하면 賊邪가 脾를 侵虜한 症이니 더욱 다스리기가 어려우며 거기에다 數極한 症이 添加되면 危殆롭다.

9) 霍亂³⁷⁾

【脈法】

① 霍亂의 脈이 浮하고 洪하면 救할 수 있고 微하고 遲하면서 말하지 못하고 氣가 적으면 낮기 어렵다.

② 脈이 많이 伏하면 끊어지기 쉽다.

③ 脈代하면 霍亂하고, 代하면서 亂한 症도 霍亂이다. 또 關脈이 滑하면 霍亂과 吐瀉요, 또 滑하면서 고르지 못한 症은 霍亂과 吐瀉가 될 徵候이며, 代한 脈은 霍亂이 틀림없다.

④ 脈이 滑하고 數하면 嘔가 되고 代한 脈은 霍亂이며, 微하고 滑한 것은 살고 澁하고 數한 脈은 좋지 못하다.

⑤ 脈이 가늘면서 澁하거나 或은 結하거나 或은 促하거나 或은 代한 것은 다 死脈으로 斷定할 수 없으니 대체로 脈이 亂한 때문이다.

⑥ 脈이 浮하고 大하면서 洪한 症은 救하고, 微하

37) 霍亂脈浮洪可救脈微遲而不語氣少則難差<得效>

○脈多伏或絶<丹心>

○脈代者霍亂代而亂者亦霍亂又關脈滑爲霍亂吐瀉又滑而不勻必是霍亂吐瀉之候脈代勿訝<醫鑑>○滑數爲嘔代者霍亂微滑者生澁數凶斷<脈訣>

○脈微而澁或代而散或隱而伏或大而虛或結或促或代皆不可斷以死脈亂故也<正傳>

○脈浮大而洪可救微弱而遲難救<正傳>

고 弱하면서 遲한 症은 救하기 어렵다.

10) 嘔吐³⁸⁾

【脉法】

寸口脉이 數하면 곧 吐한다.

① 寸口脉이 細하고 數한 경우에 數한 症은 熱이고 細한 症은 寒이며 數하면 嘔吐한다.

② 問 病人의 脉이 數하면 熱이 되는 症이니 마땅히 穀食을 消化할 것인데 穀食을 먹으면 도리어 吐하는 症은 어쩐 일인가? 師 答 답을 過하게 내어서 陽氣가 微弱하고 膈氣가 虛하면 脉이 數하니 數한 症은 客熱이 되는 故로 穀을 消化하지 못하는 症은 胃中이 虛冷한 때문에 吐하는 症이라 하였다.

③ 陽脉이 緊하고 陰脉이 數하면 먹은 뒤에 곧 吐한다.

④ 寸脉이 緊하고 尺脉이 濇하면 가슴이 가득하여 能히 먹지 못하고 吐한다.

⑤ 脉이 滑하면 嘔吐한다.

⑥ 嘔吐는 다름이 아니고 寸脉이 緊하고 滑하며 數하고 微한데 起因하는 症인데 數한 症은 血이 虛한 症이며 단지 浮하기만 한 症은 胃가 膈은 症이요

芫한 症은 瘀血이 있는 症이며 가장 忌하는 症은 濇하고 弱한 것이다.

⑦ 趺陽脉이 浮하고 濇한 경우에 浮한 症은 虛가 되고 濇한 症은 脾가 傷한 症이니 脾가 傷하면 旋磨하지 못하므로 아침에 먹은 것을 저녁에 吐하고 저녁에 먹은 것을 아침에 吐하여 完穀을 消化하지 못하니 病名을 胃反이라 일컫는다.

⑧ 脉이 緊하고 濇하면 病을 고치기 어렵다.

⑨ 脉이 弦한 症은 虛한 것이니 胃氣가 남음이 없어서 아침에 먹으면 저녁에 吐하고 저녁에 먹으면 아침에 吐한다.

⑩ 反胃와 噎膈 곧 딸꾹질하여 목이 잠기는 症은 寸脉은 緊하고 尺脉은 濇하다.

⑪ 噎膈과 反胃에 脉이 浮하고 緩한 症은 살고 沈하고 濇한 症은 죽으며 脉이 濇하고 작은 것은 血이 不足한 탓이요 脉이 大하고 弱한 症은 氣가 不足한 症이다.

11) 咳嗽³⁹⁾

39)咳嗽所因 浮風 緊寒 數熱 細濕 房勞瀆難 右關滯者飲食傷脾 左關弦短疲極肝衰 浮短肺傷 法當咳嗽 五藏之嗽 各視本部 浮緊虛寒 沈數實熱 洪滑多痰 弦濇少血 形盛脉細不足以息 沈小伏匿 皆是死 脉惟有浮大而嗽者生 外證內脉參考秤停<脉訣>

38) 寸口脉數其人即吐

- 寸口脉細而數數則爲熱細則爲寒數爲嘔吐<脉經>
- 問曰病人脉數數爲熱當消穀引食而反吐者何也師曰過發其汗令陽氣微膈氣虛脉乃數數爲客熱不能消穀胃中虛冷故吐也<仲景>
- 陽脉緊陰脉數其人食已即吐
- 寸緊尺濇其人胸滿不能食而吐<東垣>
- 脉滑爲嘔吐<脉訣>
- 嘔吐無他寸緊滑數微數血虛單浮胃薄芫則有瘀最忌瀆瀆<回春>
- 趺陽脉浮而濇浮則爲虛濇則傷脾脾傷則不磨朝食暮吐暮食朝吐完穀不化名曰胃反<脉經>
- 脉緊而濇其病難治
- 脉弦者虛也胃氣無餘朝食暮吐暮食朝吐<脉經>
- 反胃噎膈寸緊尺濇<回春>
- 噎膈反胃脉浮緩者生沈濇者死脉濇而小血不足脉大而弱氣不足<醫鑑>

- 關上脉微爲咳
- 脉弦或緊爲寒
- 脉浮爲風
- 脉細爲濕
- 脉數爲熱
- 脉沈爲留飲
- 沈數爲實熱
- 洪滑爲多痰
- 脉浮軟者生 沈小伏匿者死<正傳>
- 喘急脉沈肺脹停水氣逆填胸脉必伏取沈而實滑身溫易愈身冷脉浮尺濇難補<回春>
- 喘脉滑而浮者生濇而數者死大抵宜浮遲不宜急數<正傳>
- 喘鳴肩息者 脉實大也 緩則生 急則死<內經>
- 喘 脉滑而手足溫者生 脉濇而手足寒者死 數者亦死 爲其形損故也<脉經>
- 咳逆脉浮而緩者易治

【脈法】

기침의 원인을 알려면 脈을 짚어보아야 하는데 脈이 浮하면 風이고 緊하면 寒이고 數하면 熱이고 細하면 濕이다. 지나치게 성생활을 하여 생긴 기침 때에는 瀉脈이 나타나는데 치료하기 어렵다. 오른쪽 關脈이 濡한 것은 음식에 脾가 상한 것이고 왼쪽 關脈이 弦短한 것은 몹시 피곤하여 간이 쇠약해진 것이다. 脈이 浮短한 것은 肺가 상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반드시 기침이 난다. 五臟에서 나는 기침 때는 각각 그 부위를 보아야 하는데 脈이 浮緊한 것은 虛寒이고 沈數한 것은 實熱이며 洪滑한 것은 痰이 많은 것이고 弦澁한 것은 피가 적은 것이다. 몸은 實하나 脈이 細하면서 숨 쉴 기운도 없거나 沈小하면서 伏하여 잘 짚이지 않는 것은 다 죽을 수 있는 脈이다. 오직 脈이 浮大하면서 기침이 나는 것만이 살 수 있다. 證候와 脈이 서로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 ① 關脈이 微하면 기침이 나게 된다.
- ② 脈이 弦하거나 緊한 것은 寒이다.
- ③ 脈이 浮한 것은 風이다.
- ④ 脈이 細한 것은 濕이다.
- ⑤ 脈이 數한 것은 熱이다.
- ⑥ 脈이 沈한 것은 留飲이다.
- ⑦ 脈이 沈數한 것은 實熱이다.
- ⑧ 脈이 洪滑한 것은 痰이 많은 것이다.
- ⑨ 脈이 浮軟하면 살고 脈이 沈小하고 伏하면서 잘 짚이지 않는 것은 죽을 수 있다.
- ⑩ 숨이 차면서 脈이 沈한 것은 肺脹이 되고 물이

잔[停水] 것이다. 기가 치밀어 올라 가슴이 그득할 때에는 脈이 반드시 伏하다. 脈이 沈하면서 實滑하고 몸이 다는 것은 쉽게 낮고 몸이 차면서 脈이 浮한데 尺脈이 瀉한 것은 낮기 어렵다.

⑪ 숨이 찰 때 脈이 滑하면서 浮한 것은 살고 澁하면서 數한 것은 죽을 수 있다. 대체로 脈이 浮遲하면 좋고 急數하면 좋지 않다.

⑫ 숨이 차서 그르렁그르렁하고[鳴] 어깨를 들먹이면서 숨을 쉴 때에는 脈이 實하면서 大하다. 脈이 緩하면 살고 急하면 죽을 수 있다.

⑬ 숨이 찰 때 脈이 滑하고 손발이 따뜻하면 산다. 그러나 脈이 瀉하고 손발이 차면 죽을 수 있으며 脈이 數하여도 죽을 수 있는데 그것은 형체가 이미 상한 것이기 때문이다.

⑭ 咳逆 때 脈이 浮緩하면 치료하기 쉽다.

⑮ 脈이 弦急하면서 꼭 눌러봐도 脈이 뛰지 않는 것은 치료하기 어렵다.

⑯ 脈이 結하거나 促하거나 微하면 치료할 수 있다.

⑰ 脈이 代하면 위급하다.

⑱ 오른쪽 關脈이 弦한 것은 간[木]이 비위[土]를 침범한 것이기 때문에 치료하기 어렵다.

⑲ 기침이 나면서 氣가 치밀 때 脈이 산(散, 산은 곧 數脈(數脈)이다)하면 죽을 수 있다. 咳逆 때 脈이 數한 것은 火가 金을 억제한 것[火刑金]이므로 죽을 수 있다.

⑳ 기침할 때 피고름이 나오는데 이때에 脈이 數하면서 虛한 것은 肺痿이고 數하면서 實하면 肺癰이다.

㉑ 肺痿 때 피를 뺀고 脈이 緊하면서 세게 뛰는 것은 죽을 수 있고 滑한 것은 산다.

㉒ 寸脈이 數하고 虛하면서 澁한 것은 肺痿의 증상이다.

12) 積聚⁴⁰⁾

- 弦急而按之不鼓者難治
- 脉結或促或微皆可治
- 脉代者危
- 右關脉弦者 木乘土位 難治<正傳>
- 咳逆上氣脉散者死(散即數脉也) 咳逆脉數 爲火刑金必死<入門>
- 咳唾膿血 脉數虛爲肺痿 數實爲肺癰<仲景>
- 肺痿唾血 脉緊强者死 滑者生<脉經>
- 寸數虛澁 肺痿之形<脉訣>

40)鬱脉多沈伏或結或促或代<正傳>

○鬱脉沈瀉積脉弦堅<丹心>

【脉法】

鬱脈은 沈伏한 症이 많고 或은 結하고 或은 促하며 或은 代한 症이다.

① 鬱脈은 沈澹하고 積脈은 弦 緊하다.

② 病이 右脇에 있으면 積氣가 있으니 肺脈을 얻으면 結한 症인데 結한 症이 甚하면 積이 甚하고 結한 症이 微하면 積이 微한 症이며 가령 肺脈이 보이지 않아도 右手脈이 반드시 沈伏한 症이다.

③ 心肺에 積이 있으면 그 脈이 다 喘하고 數하며 肝에 積이 있으면 그 脈이 弦하고 길며 脾腎에 積이 있으면 그 脈이 다 큰 것이다.

④ 脈이 弦하고 緊하면 積인 症이요 脈이 弦하고 緊하며 微細하면 癥인 症이니 대개 癥瘕와 積聚의 脈이 다 弦緊한 法인데 心에 있으면 寸脈이 弦緊하고 胃脘에 있으면 關脈이 弦緊하고 臍下에 있으면 尺脈이 弦緊하다.

⑤ 積이 안에 있고 脈이 보이지 않으면 難治한 것인데 한 脈이라도 서로 應하는 것이 있으면 易治가 된다.

⑥ 積聚를 診察해서 그 脈이 堅하고 強하며 急하면 살고 虛하고 弱하면 죽는다.

- 病在右脇有積氣得肺脉結甚則積甚結微則積微肺脉雖不見右手脉當沈伏<難經>
- 心肺有積其脉皆喘數肝有積其脉弦長脾腎有積其脉皆大<綱目>
- 脉弦緊爲積脉弦緊而微細者癥也夫癥瘕積聚之脉皆弦緊在心下卽寸弦緊在胃脘卽關弦緊在臍下卽尺弦緊
- 內有積不見脉難治見一脉相應爲易治
- 診積聚其脉堅強急者生虛弱者死
- 脉弦而伏者腹中有癥不可轉也必死不治<脉經>
- 五藏爲積六府爲聚積在本位聚無定處駛緊浮牢小而沈實或結或伏爲聚爲積實強者生沈小者死<脉訣>
- 五積屬陰沈伏附骨肝弦心朮腎沈急滑脾實且長肺浮喘卒
- 六聚結沈痼則浮結
- 又有癥瘕其脉多弦弦急癥疾弦細癥堅
- 沈重中散食成癖疝左轉沈重氣癥胸前若是肉癥右轉橫旋
- 積聚癥瘕緊則痛纏虛弱者死實強可痊<回春>
- 腹中有積脉忌虛弱<醫鑑>
- 診婦人疝瘕積聚之脉弦急者生虛弱者死<脉經>

⑦ 脈이 弦하고 伏한 症은 腹中の 癥이 있는 症이니 轉輾하면 안되며 難治다.

⑧ 五臟은 積이 되고 六腑는 聚가 되는 法인데 積은 本位에 있고 聚는 定處가 없으니 脈이 結緊한 것은 牢小한데 있고 沈實하며 或은 結하고 或은 伏하여 聚가 되고 積이 되는 것인데 實하고 強한 症은 살고 沈하고 小한 症은 죽는다.

⑨ 五積이 陰에 屬하니 脈이 沈伏한 症은 骨에 붙고 肝이 弦하고 心이 朮하며 腎이 沈하고 急하고 脾가 實하고 또 長하며 肺가 浮하고 喘한 症은 다 죽는다.

⑩ 六聚는 結하고 沈하며 痼疾은 浮하고 結한다.

⑪ 또 癥瘕가 있으니 그 脈이 弦한 症이 많은데 弦하면서 急한 症은 瘕症이요.

⑫ 弦하면서 細한 症은 癥이 堅한 症이다.

⑬ 脈이 沈重하고 가운데가 홀어지며 음식으로 말미암아 癖과 疝을 이루는 症은 왼쪽으로 돌고 沈重하면서 氣癥이 있는 것은 가슴에 있는 症이니 이것은 肉癥이며 오른쪽으로 구르고 가로로 돈다.

⑭ 積聚와 癥瘕가 緊하면 痛이 兪히게 되니 虛弱하면 죽고 實強하면 산다.

⑮ 腹中에 積이 있으면서 脈의 虛弱한 것을 忌한다.

⑯ 婦人の 疝瘕와 積聚의 脈이 弦急한 症은 살고 작은 症은 죽는다.

13) 浮腫⁴¹⁾

【脉法】

모든 脈이 沈한 症은 水가 있는 症이니 身體가

41) 脉得諸沉當責有水身體腫重<仲景>

○水病脉洪大者可治微細者不可治

○水病腹大如鼓脉實者生虛者死<脉經>

○水氣得沉脉則逆此陰脉也<東垣>

○水氣浮大則宜沈細則愈而復作

○上氣浮腫浮滑可安微細難療<得效>

○水腫脉多沉伏

○病陽水兼陽證脉必沉數病陰水兼陰證脉必沉遲<正傳>

○沉伏相搏名曰水陽虛陰實爲水必矣<三因>

浮腫하고 무거운 法이다.

① 水病에 脈이 洪大한 症은 易治요 微細한 症은 難治다.

② 水病에 배가 북과 같은데 脈이 實하면 살고 虛하면 죽는다.

③ 水氣가 沈脈을 얻으면 逆하는 症이니 이것은 陰脈이다.

④ 水氣에 脈이 浮하고 大하면 可하고 沈하고 細하면 나왔다가 다시 發한다.

⑤ 上氣하고 浮腫하는데 脈이 浮하고 滑하면 可하고 微하고 細하면 難治다.

⑥ 水腫의 脈은 대체로 沈伏한 症이 많다.

⑦ 陽水症에 陽症을 兼하면 脈이 반드시 沈數하다.

⑧ 陰水症에 陰症을 兼하면 脈이 반드시 沈遲하다.

⑨ 沈과 伏이 相搏하는 症을 水라고 하며 陽이 虛하고 陰이 實한 症이니 水가 되는 症을 疑心할 수 없다.

14) 脹滿⁴²⁾

【脈法】

脈이 크고 堅하는데 濇한 症은 脹이다.

① 脈이 盛하는데 緊한 症을 脹이라고 한다.

② 脹滿의 脈이 弦하면 脾가 肝의 制御를 받는 症이며 洪하고 數한 症은 熱脹이고 遲하고 弱한 症은 陰寒한 症이며 浮한 症은 虛滿이고 緊한 症은 實한 症이니 浮한 症은 다스리고 虛한 症은 危急한 症이다.

③ 關上脈이 虛한 症은 內脹이고 더디고 滑한 症은 脹이며 虛하고 緊澁한 症도 脹이고 或은 弦하고

42) 其脈大堅而濇者脹也<靈樞>

○ 脈盛而緊曰脹<內經>

○ 脹滿脈弦脾制於肝洪數熱脹遲弱陰寒浮爲虛滿緊則中實浮則可治虛則危急<脈訣>

○ 關上脈虛則內脹

○ 遲而滑者脹

○ 虛而緊澁者脹

○ 或弦而遲或浮而數皆脹也<正傳>

○ 諸氣脹滿浮大可療虛小難保<得效>

遲하거나 또는 浮하고 數한 症도 다 脹이다.

④ 모든 氣가 脹滿하고 浮大한 症은 다스리며 虛하고 小한 症은 保全하기 어렵다.

15) 消渴⁴³⁾

【脈法】

消渴에 脈이 實하고 大하면서 病이 오래된 것은 나으나 脈이 懸小하고 堅하면서 病이 오래된 것은 다스리기 어렵다.

① 消渴에 脈이 마땅히 堅實하고 찾아야 하는 것인데 도리어 沈濇하고 가늘면 難治다.

② 消渴에 脈이 數大한 것은 살고 細小하고 浮短한 것은 難治다.

③ 心脈이 滑하면 渴이 되는데 滑한 것은 陽氣가 勝한 것이다.

④ 心脈이 微小한 것은 消瘵이 되는 것이니 대체로 脈이 數하고 大한 것은 살고 沈하고 小한 것은 難治다.

⑤ 心脈의 滑한 것이 甚한 것은 渴이 된다.

⑥ 趺陽脈이 數하면 胃中에 熱이 있는 것이니 穀을 消化하고 물을 많이 마시며 大便이 반드시 堅固하고 小便이 잦다.

⑦ 消渴脈은 마땅히 數하고 大하여야 되는 것이며 虛하고 小한 것을 忌한다.

16) 黃疸⁴⁴⁾

43) 消渴 脈實大病久可治 脈懸小堅病久不可治<內經>

○ 消渴 脈當得緊實而數 反得沉濇而微者 死<難經>

○ 消渴 脈數大者活 細小浮短者死<脈訣>

○ 心脈滑爲渴 滑者陽氣勝也

○ 心脈微小 爲消瘵

○ 脈數大者生 沉小者死<脈經>

○ 心脈滑甚 爲喜渴<聖惠>

○ 趺陽脈數 胃中有熱 卽消穀引飲 大便必堅 小便卽數<仲景>

○ 消渴脈 宜數大 忌虛小<醫鑑>

44) 五疸實熱脈必洪數其或微澁證屬虛弱<脈訣>

【脉法】

① 五疸의 實熱은 脈이 만드시 洪數하고 혹 微澁한 症은 虛弱한데 屬한다.

② 疸에 脈이 緩大한 症은 順하고 弦急하므로 堅한 症은 逆한 症이다.

17) 瘧瘧

【脉法】

瘧脉自弦弦數多熱弦遲多寒弦小緊者宜下之弦遲者可溫之弦緊者可發汗浮大者可吐之弦數者風發也以飲食消息止之<要略>

① 瘧脉自弦微則爲虛代散則死<脉經>
 ② 瘧脉自弦弦遲多寒弦數多熱隨時變遷<脉訣>
 ③ 瘧脉多弦但熱則弦而帶數寒則弦而帶遲亦有病久而脉極虛微而無力似乎不弦然而必於虛數之中見弦但不搏手耳細察可也<丹心>

④ 弦短者傷食弦滑者多痰虛微無力爲久瘧<醫鑑>
 ⑤ 瘧脉遲緩者病自愈<回春> : 瘧疾의 脈은 대체로 弦한 症인데 弦하고 數한 症은 熱이 많고 弦하고 遲한 症은 寒이 많은데 弦하고 小하며 緊한 症은 下해야 하고 弦하고 遲한 症은 溫하게 해야 하고 弦하며 緊한 症은 發汗해야 하며 浮하고 大한 症은 吐해야 하고 弦하고 數한 症은 風으로 發해야 하는데 飲食으로써 消息하면 저절로 그쳐진다.

⑥ 瘧脈이 스스로 弦하고 微하면 虛한 症이고 代하고 散하면 危險한 症이다.

⑦ 瘧脈은 스스로 弦한 症인데 弦하고 遲하면 寒이 많고 弦하며 數하면 熱이 많은 症이나 때때로 變遷한다.

⑧ 瘧脈은 弦한 症이 많은 것인데 熱하면 弦하면서 遲한 症을 띠고 또한 病이 오래되면 脈이 極히 虛하여 微하면서 無力하여 弦한 것같지 않으면서 만드시 虛하고 數한 가운데 弦한 症이 보이되 다만 손 끝은 들이받지는 않으니 詳細히 診察해야 한다.

○瘧脉緩大者順弦急而堅者逆<直指>

⑨ 弦하고 短한 症은 飲食에 傷한 症이요 弦하고 滑한 症은 痰이 많으며 微하고 無力한 症은 瘧疾이 오래된 症이다.

⑩ 瘧의 脈이 遵遲하면 病이 스스로 낫는다.

18) 溫疫⁴⁵⁾

【脉法】

尺部가 熱이 甚하고 脈이 盛하며 燥한 症은 溫病이다.

① 時疫의 脈은 一定한 根據가 없으니 때를 따라서 詳審하여야만 비로소 얻는 것이며 輕率하게 議論하지 못한다.

② 陰陽이 다 盛하면 熱病의 極한 症이니 浮하면서 滑하고 沈하면서 散澁한 症인데 오직 溫病의 脈은 모든 經에 흩어져 있으므로 각각 있는 곳으로 따라가야 하니 무어라고 지명할 수가 없다.

③ 陽脈은 濡弱하고 陰脈은 弦緊한 症인데 다시 溫氣를 만나면 變해서 瘟疾이 된다.

④ 溫病이 2-3일에 몸이 熱하며 頭痛하고 배가 가득하며 飲食은 如常한데 脈이 直하고 疾하면 8일 만에 죽는다.

⑤ 4-5일에 頭痛하고 배가 가득하여 吐하고 脈의

45)尺膚熱甚 脉盛躁者 病溫也<靈樞>

○時疫之脉無定據隨時審思乃得未可輕議<得效>

○陰陽俱盛病熱之極浮之而滑沈之散澁惟有溫病脉散諸經各隨所在不可指名<脉訣>

○陽脉濡弱陰脉弦緊更遇溫氣變爲瘟疫

○溫病二三日體熱腹滿頭痛食飲如故脉直而疾八日死

○溫病四五日頭痛腹滿而吐脉來細而強十二日死

○溫病八九日頭身不痛目不赤色不變而反利脉來澁按之不足舉時大心下堅十七日死

○溫病汗不出出不至足者死

○厥逆汗自出脉堅強急者生虛軟者死<脉法>

○溫病穰穰大熱脉細小者死

○溫病下利腹中痛甚者死<醫鑑>

○熱病得汗脉安靜者生躁急者死及大熱不去者亦死

○熱病七八日當汗反不得汗脉絕者死<醫鑑>

○熱病脉靜汗已出脉盛一逆也死不治<靈樞>

오는 法이 細하면서 強하면 12일 만에 죽는다.

⑥ 8-9일에 머리와 몸이 아프지 않고 눈도 붉지 않으며 色도 變하지 않으면서 도리어 利하고 脈의 오는 法이 澁한데 누르면 不足하고 들면 커지며 心臟 밑이 뻗뻗하면 17일 만에 죽는다.

⑦ 溫病에 땀이 나지 않고 나도 발에까지 이르지 못하면 죽는다.

⑧ 厥逆에 땀이 스스로 나는데 脈이 堅하고 強하며 急하면 살고 虛하고 數하면 죽는다.

⑨ 溫病에 쉬지 않고 熱이 많으며 脈이 細小하면 죽는다.

⑩ 溫病에 下痢하고 복중의 통이 심하면 죽는다.

⑪ 熱病에 땀을 얻고 脈이 安靜하면 살고 躁急하면 죽고 또 大熱이 除하지 않으면 죽는다.

⑫ 熱病이 7-8일만에 마땅히 땀이 나는 法인데 도리어 땀이 나지 않고 脈이 끊어지면 죽는다.

⑬ 熱病에 脈이 靜하고 땀이 이미 났어도 脈이 盈한 症이 一逆이라는 症인데 죽는다.

19) 邪崇⁴⁶⁾

【脈法】

脈의 오는 法이 遲하고 伏하며 혹은 參새가 쫓는

것과 같은 症은 邪脈이고 만약 脈이 오는 法이 弱하고 綿綿하고 遲伏하거나 或은 綿綿해서 度數를 알지 못하면서 顏色이 변하지 않는 症은 邪病人 症이며 脈이 오는 法이 잠깐 컷다가 잠깐 작고 잠깐 짧았다가 잠깐 길어지는 症은 禍脈이 되는 것이고 兩手의 脈이 浮浮하고 細微하며 綿綿하여서 알수가 없는데 다만 陰脈이 있어서 또한 가늘고 綿綿하니 이것은 陰蹻 陽蹻의 脈이니 亡人이 禍를 주는 것이며 脈이 오는 것이 洪大하며서 弱한 症은 杜崇고 脈의 오는 것이 沈沈하고 濇濇하며 四肢가 무거운 症은 土崇이며 脈의 오는 것이 飄風과 같고 陰을 쫓아서 陽으로 달아나는 것은 風邪고하나는 오는 法이 고르고 하나는 오는 法이 速한 것은 鬼邪이다.

① 崇의 害를 알려면 心脈이 虛散하고 肝脈이 洪盛하며 或은 浮沈 長短 大小가 一定하지않고 或은 錯雜하여 고르지 않다.

② 잠깐 성글고 잠깐 작고 잠깐 컷다가 잠깐 작아지고 或은 促하고 或은 邁힌 症은 다 邪脈이다.

③ 疰脈이 浮大하면 다스리고 細數하면 難治인 症이다.

④ 어느 사람이 病을 얻은 처음에 문득 譫語하고 發狂하고 六腑가 脈이 없는데 大指의 밑과 寸口위에 動脈이 있으니 이것이 즉 鬼脈이며 邪崇이다. 이러한 것은 藥을 쓰지 않고 符와 呪으로써 다스리는 法이 마땅하다.

⑤ 만약 脈이 沈沈하고 澤澤하며 四肢가 不仁한 症은 亡崇라고 하고 或은 大하면서 弱한데 弱한 症을 邪崇라고 하며 乍大乍小하고 乍短乍長한 症은 鬼崇다.

46) 脈來遲伏或如雀啄乃邪脈也若脈來弱綿綿遲伏或綿綿不知度數而顏色不變此邪病也脈來乍大乍小乍短乍長爲禍脈也兩手脈浮浮細微綿綿不可知但有陰脈亦細綿綿此爲陰蹻陽蹻之脈此亡人爲禍也脈來洪大弱者社崇也脈來沈沈濇濇四肢重者土崇也脈來如飄風從陰趨陽者風邪也一來調一來速者鬼邪也<千金>

○欲知崇害心脈虛散肝脈洪盛或浮沈長短大小無定或錯雜不倫<得效>

○乍大乍小乍長乍短此皆邪脈神志昏亂<丹心>

○乍疎乍數乍大乍小或促或結皆邪脈也<脈經>

○疰脈浮大可治細數難治<永類>

○有人得病之初便譫言或發狂六部無脈然切大指之下寸口之上却有動脈者此之謂鬼脈乃邪崇爲之也不須服藥但宜符呪治之<回春>

○若脈沈沈澤澤四肢不仁者亡崇也或大而懶懈者社崇也脈來乍大乍小乍短乍長者鬼崇也<精義>

20) 婦人⁴⁷⁾

47) 求嗣之脈 專責於尺

○右尺偏旺 火動好色

○左尺偏旺 陰虛非福

○惟沈滑勻 易爲生息

○微澁精清 兼遲冷極

Table 1. The Frequency of 27 mek (pulse condition) in Dongeuibogam

脈名	빈도수	빈도	脈名	빈도수	빈도	脈名	빈도수	빈도
浮	120	8.9%	微	65	4.8%	芤	19	1.4%
沈	112	8.3%	細	62	4.6%	結	18	1.3%
弦	110	8.1%	洪	50	3.7%	動	16	1.2%
大	106	7.9%	弱	46	3.4%	短	16	1.2%
數	103	7.6%	實	45	3.3%	長	14	1%
濇(澁)	33(51)	2.4%(3.8%)	遲	43	3.2%	散	14	1%
虛	70	5.2%	伏	29	2.1%	代	13	1%
滑	69	5.1%	緩	28	2%	促	7	0.5%
緊	67	5%	濡	20	8.9%	牢	4	0.3%

Table 2. The Frequency of Expressed mek (pulse condition) except for the 27 mek (pulse condition)

脈名	頻度數	빈도	脈名	頻度數	빈도	名脈	頻度數	빈도
尺	42(右尺2)	15.3	絶	8	2.8	脾脈	2	0.7
急	43	14.9	肝脈	8	2.8	肺脈	2	0.7
小	35	12.2	疾	7	2.4	氣口	2	0.7
關	28	9.7	少陰脈	5(少陰1)	2.1	陽脈	2	0.7
寸	27	9.3	心脈	4	1.4	胃脈	1	0.3
堅	19	6.6	趺陽脈	3	1	人迎	1	0.3
寸口	19	6.6	腎脈	3	1	陰脈	1	0.3
盛	10	3.5	精	2	0.7			
强	9	3.1	軟	2	0.7			

【脉法】

求嗣의 脈은 순전히 尺脈에 있다.

- ① 右尺脈이 旺盛하면 火가 動하고 色을 좋아한다.
- ② 左尺脈이 旺盛하면 陰이 虛하고 福되지 못한다.
- ③ 오직 沈滑하고 고른 것이 生息하기 쉬운 것이다.
- ④ 여자가 生息을 잘하지 못하는 것도 역시 尺脈이 濇한 것이다.
- ⑤ 남자의 脈이 微弱하고 澁하면 자식을 얻지 못하니 精氣가 淸冷한 때문이다.

21) 小兒48)

- 若見微濡入房無力
 - 女不好生 亦尺脉濇<回春>
 - 男子脉微弱而澁 爲無子 精氣淸冷也<脉經>
- 48)小兒三歲至五歲以一指按掌後人迎氣口之脈常以一息六

【診小兒脈法】

小兒의 3歲로부터 5歲에 이르기까지는 한손가락으로써 人迎과 氣口脈을 눌러서 항상 1息에 6-7번이 이르는 것을 正常으로 한다.

- 七至爲常<入門>
- 七歲八歲曰齡九歲十歲曰韶始可以一指按三部脈而以一息七八至爲平十一至十四歲曰童卅以一息五六至爲常<入門>
- 小兒之脈以一息六七至爲平和八九至爲發熱五至爲內寒<綱目>
- 小兒脈亂不須治(不須治藥也)
- 弦急氣不和
- 沈緩傷食
- 促急虛驚
- 浮爲風
- 沈細爲冷<錢乙>
- 浮緩傷風洪緊傷寒數則爲熱遲則爲寒<入門>

Table 3. Other Things (Pulse Condition) Above And Beyond.

NO	기타 맥상 표현
1	瞥瞥如羹上肌 榮榮如蜘蛛絲(內景篇 氣部)
2	少陰(內景篇 小便部)
3	右尺(內景篇 大便部)
4	脈舉之則弦 按之則堅 左手脈 右手脈(外形篇 頭部)
5	左寸 右寸 左手尺(外形篇 眼部)
6	左寸 兩尺(外形篇 耳部)
7	左寸 右寸(外形篇 鼻部)
8	左寸 右寸 左關 右關(外形篇 口舌部)
9	右關(外形篇 牙齒部)
10	兩寸(外形篇 咽喉部)
11	無力(外形篇 背部)
12	陽微陰弦 左手脈 右手脈 兩手脈 右關脈(外形篇 胸部)
13	脈陽浮而數陰實而大 陽脈 陰脈 關前 關後(外形篇 皮部)
14	三陽 三陰(外形篇 前陰部)
15	大數而極(雜病篇 風部)
16	陰 陽 陰脈 陽脈 陰陽俱(雜病篇 寒部)
17	陽弱陰虛(雜病篇 暑部)
18	陽脈 右寸 右關(雜病篇 內傷部)
19	脈來軟(雜病篇 虛勞部)
20	肝弦心扎腎沈急滑脾實且長肺浮 沈重(雜病篇 積聚部)
21	脈盛躁 直而疾(雜病篇 溫疫部)
22	如雀啄乃邪脈 陰蹻陽蹻 脈沈沈澤澤(雜病篇 邪祟部)
23	脈亂(雜病篇 小兒部)

① 7歲로부터 8歲까지는 齟이라 하고 9歲로부터 10歲까지는 齟라하는데 비로소 한손가락으로써 三部脈을 눌러서 1息에 7-8至는 平和한 것이고 8-9至는 發熱한 것이며 5至는 속이 찬 것이다.

- ② 小兒가 脈이 亂하면 다스리지 못한다.
- ③ 弦急하면 氣가 和하지 못하며
- ④ 沈緩하면 飲食이 傷한 것이고
- ⑤ 促急한 것은 虛驚이며
- ⑥ 浮한 것은 風이요
- ⑦ 沈細한 것은 冷한 것이다.
- ⑧ 浮緩한 것은 風에 傷한 것이며 洪緊한 것은 寒에 傷한 것이요 數한 것은 熱이며 遲한 것은 寒이다.

IV. 考察

東醫寶鑑의 脈部分에 나온 맥상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였으며, 대체로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浮, 沈, 弦, 大, 數, 濇(澁), 虛, 滑, 緊, 微, 細, 洪, 弱, 實, 遲, 伏, 緩, 濡, 扎, 結, 動, 短, 長, 散, 代, 促, 牢脈 즉 27脈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그 외에도 尺(右尺), 急, 小, 關, 寸, 堅, 寸口, 盛, 強, 絕, 肝脈, 疾, 少陰脈(少陰), 心脈, 趺陽脈, 腎脈, 精, 軟, 脾脈, 肺脈, 氣口, 陽脈, 胃脈, 人迎, 陰脈 등의 표현으로 맥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東醫寶鑑에는 七死脈에 三種의 死脈을 추가하여 十怪脈에 대한 언급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에 주종을 이루고 있는 27脈에 대한 頻度數를 확인해 본 결과 浮脈은 120(8.9%)회, 緩脈은

28(2%)회, 促脈은 7(0.5%)회, 芤脈은 19(1.4%)회, 澹脈은 33(2.4%)회, 澁脈은 51(3.8%)회, 結脈은 18(1.3%)회, 滑脈은 69(5.1%)회, 遲脈은 43(3.2%)회, 代脈은 13(1%)회, 實脈은 45(3.3%)회, 伏脈은 29(2.1%)회, 牢脈은 4(0.3%)회, 弦脈은 110(8.1%)회, 濡脈은 20(1.5%)회, 動脈은 16(1.2%)회, 緊脈은 67(5%)회, 弱脈은 46(3.4%)회, 細脈은 62(4.6%)회, 洪脈은 50(3.7%)회, 長脈은 14(1%)회, 數脈은 103(7.6%)회, 微脈은 65(4.8%)회, 短脈은 16(1.2%)회, 大脈은 106(7.9%)회, 沈脈은 112(8.3%)회, 虛脈은 70(5.2%)회, 散脈은 14(1%)회가 나왔다(Table 1).

27脈 以外の言及된脈에 대한 표현의頻度數를 확인해 본 결과 尺(右尺)이 42(2)회로 15.3%, 急이 43회로 14.9%, 小가 35회로 12.2%, 關이 28회로 9.7%, 寸이 27회로 9.3%, 堅이 19회로 6.6%, 寸口가 19회로 6.6%, 盛이 10회로 3.5%, 強이 9회로 3.1%, 絶이 8회로 2.8%, 肝脈이 8회로 2.8%, 疾이 7회로 2.4%, 少陰脈(少陰)이 5(1)회로 2.1%, 心脈이 4회로 1.4%, 跌陽脈이 3회로 1%, 腎脈이 3회로 1%, 精이 2회로 0.7%, 軟이 2회로 0.7%, 脾脈이 2회로 0.7%, 肺脈이 2회로 0.7%, 氣口이 2회로 0.7%, 陽脈이 2회로 0.7%, 胃脈이 1회로 0.3%, 人迎이 1회로 0.3%, 陰脈이 1회로 0.3%가 나왔다(Table 2). 그 外의 다른脈象의表現을 찾아보니 內景篇 氣部에 瞥瞥如羹上肌, 縈縈如蜘蛛絲란 표현이 있고, 外形篇 背部에 無力, 雜病篇 風部에 大數而極, 雜病篇 虛勞部에 脉來軟, 雜病篇 溫疫部에 盛躁, 直而疾, 雜病篇 邪祟部에도 서술적인 표현이 나열되어 있다(Table 3). 또한, 大體的으로 單一脈보다는 兼脈이 많았으며 單一脈이라도 한 病症에 여러 單一脈으로 區分되어진 곳이 많았다.

V. 結論

基本 東醫寶鑑에 脈部分에 나온 27脈에 대한 頻度數를 확인해 본 결과 浮脈 8.9%, 沈脈 8.3%, 弦脈 8.1%, 大脈 7.9%, 數脈 7.6%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는 27脈中 比重)

27맥 이외 언급된 맥의 표현에서 寸口, 絶, 跌陽脈, 寸, 關, 尺, 少陰脈, 肝脈, 心脈, 脾脈, 肺脈, 腎脈, 胃脈, 氣口, 人迎, 陽脈, 陰脈은 脈의 部位를 指稱하는 것으로 보여 脈象의 表現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脈象의 表現 중 急이 43(14.9%)회, 小가 25(12.2%)회, 堅이 19(6.6%)회, 盛이 10(3.5%)회, 強이 9(3.1%)회 순으로 比重이 높았다. (%는 27脈 이외의 脈中 比重)

脈과 病症의 관계에서 여러 部門에서 같은 脈象이 나오므로 脈만으로 病症을 알아냈다고는 할 수 없으나 한 病症에 대해서 脈에 따른 각 原因別로 細分하였으므로 脈은 病症의 決定的 診斷要件이 아니라 部分的 診斷要件임을 알 수 있다.

脈法 條文에는 27脈의 頻度數가 대체로 많았으므로 27脈을 기본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그 外의 표현도 섞여 있으며, 부문마다 脈法이 있는 곳이 있고, 內景(身形, 夢, 聲音, 五臟六腑), 外形(面, 頸項, 乳, 肉, 脈, 筋, 骨, 手, 毛髮), 雜病(癰疽, 諸瘡, 解毒, 救急, 怪疾)에서는 脈法의 條文이 없으므로 脈에 대해 일관적으로 기술한 것이 아니라 여러 서적을 인용하여 편집한 방법의 한계를 조금 보여줌을 알 수 있다.

參 考 文 獻

1. 築地多計士, 中醫診斷學. 東京, 自然社. 1972.
2. 李鳳教. 漢方診斷學. 서울, 成輔社. 1992.
3. 王叔和. 圖註難經脈訣. 台南, 大孚書局. 1994.

4. 朴晷. 國譯瀕湖脈學·四言舉要, 서울, 大星文化社. 1992.
5. 裴秉哲. 黃帝內經素問今釋. 서울, 成輔社. 1983.
6. 朴一洪 外2人. 註譯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88.
7. 許浚. 東醫寶鑑. 서울, 大星文化社. 1992.
8. 楊維傑. 內經素問譯解. 서울, 大星文化社. 1990.
9. 康命吉. 濟衆新編. 서울, 여강출판사. 1992.
10. 許浚著. 金恭彬編譯. 纂圖方論脈訣集成, 서울, 玄同學堂. 2005.
11. 許浚. 東醫寶鑑. 경남하동군, 東醫寶鑑 出版社. 2005.
12. 李慶雨 譯著. 東醫寶鑑. 서울, 여강출판사. 1999.
13. 裴秉哲. 韓醫學 辭典. 서울, 傳統醫學研究所. 1994.
14. 許浚. 東醫寶鑑. 서울, 남산당. 1976.
15. 許浚. 東醫寶鑑. 동의문헌연구실편역, 서울, 법인문화사. 2005.
16. 許浚, 東醫寶鑑. 동의과학연구소 옮김, 서울, 휴머니스트. 2002.
17. 許浚. 병증으로 보는 東醫寶鑑. 서울, 오비기획. 2004.
18. 許浚. 新對譯東醫寶鑑. 동의문헌연구실편역, 서울, 법인문화사. 2007.

